

Style 1 조선일보

AUGUST 2022
vol.240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 NOT MANY.



Cartier



FENDI.COM



FENDI



14



19



20



뛰어난 장인 정신과 정확성에 탁월함을 더하고,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비세르 콘스탄틴의 에디션 문페이즈 워치는 파인 워치메이킹과 오프 쿠틀링의 만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섬세한 패브릭을 연상시키는 테크니스트리 기법의 플라즈마 효과와 오프셋터 디스플레이가 매력적. 케이스는 지름 35mm와 37mm, 두 버전으로 출시하며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그리고 스틸 소재 케이스 중 선택 가능하다. 문의 1670-4606



12

- 13 **AMAZING GRACE** 드라마틱한 스테이트먼트를 선사하는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 14 **하루자렌워스의 30년 여정은 어떻게 유일무이한 메가 갤러리를 만들어 냈을까?** 해외의 우수 아트 페어에 기본적이었던 익숙한,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페어에서는 직접 접해보지 못한 내로라하는 갤러리 이름을 발견하면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더러 눈에 띈다. 그중에는 하루자렌워스(Hauser & Wirth)라는 스위스 갤러리가 있다. 흔히 현대미술을 둘러싼 생태계에서 글로벌 3대 브랜드로 꼽히는 메가 갤러리다.
- 19 **자연-사람-로봇이 공존하는 미래** 기후 위기에 직면해 현대인들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모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년 1월 8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열리는 전시 <해비타트 원 (HABITAT ONE)> 역시 그 행보의 일환이다.
- 20 **SWEET IN SPLENDOR** 혼자서도 아름답지만 둘이 만나야 더 빛을 발하는 우리들의 모먼트.
- 32 **ULTIMATE ELEGANCE** 아름다운 동시에 하이 워치메이킹 기술을 겸비한 여성용 시계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이어온 비세르 콘스탄틴이 또 하나의 우아한 워치를 선보인다.
- 34 **ROMANTIC MATCH**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함께할 커플 슈즈.
- 35 **DREAMS IN NATURE** 자연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자신만의 색다른 느낌을 선사하는 포멜라토의 세 번째 라 조이아(La Gioia) 하이 주얼리 컬렉션.
- 36 **WELCOME BACK TO PISTI ISLAND** 2년 6개월 만에 참석한 피티 워드는 클래식 테일러링 하우스와 컨템퍼러리 브랜드, 그리고 신진 디자이너들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현대 남성을 위한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했다.
- 38 **CODE CLASSIC** 완벽한 실루엣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품위. 랄프 로렌 퍼플 리벨과 함께 보면 하루.
- 44 **DELIGHTFUL JOURNEY**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하는 뽀샤시아트 라지시 컬렉션.
- 46 **TIME TO TRAVEL** 선동감 넘치는 원색부터 은은한 광택이 감도는 알루미늄 소재, 도화적인 분위기를 지닌 무채색까지, 최고의 품질과 혁신적 기술을 적용한 여행용 트롤리 컬렉션.
- 47 **FRAME FATALES** 가장 스타일리시하고 가장 완벽한 변신, 2022 선 글라스.
- 48 **THE RED TREAT** 탁월한 효능과 친환경적 접근, 여기에 감각적인 경합까지 아우르는 안티에이징 케어 라인 N°1 DE CHANEL.
- 49 **SUMMER GROOMING** 강렬한 태양 아래 후끈 달아오른 피부를 단숨에 잠재워줄 수분 폭탄 그루밍 리주얼.
- 50 **EDITOR'S PICK** 피부는 진정시키고, 마음에는 안정을 되찾아줄 이 달의 뷰티템 13.

Style 조선크로닉스 Issue.240 August 2022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크로닉스>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디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크로닉스>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혁신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크로닉스>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희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경민 sjm@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필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한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선비 분혜, 재민 리은 인세 |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크로닉스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크로닉스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PANERAI

LABORATORIO DI IDEE



SUBMERSIBLE

QUARANTAQUATTRO

SURVIVAL INSTRUMENTS FOR MODERN HEROES

EXTEND YOUR INTERNATIONAL LIMITED WARRANTY FOR UP TO 8 YEARS ON PANERAI.COM

갤러리아 EAST - 신세계 강남점 - 롯데 에비뉴엘 본점 - 더현대 서울점 - 현대 무역센터점 - 현대 판교점

CHARMING STONES

늘 섬세한 골드 비즈로 독특한 매력과 우아하고 유쾌한 감성을 주는 베를리™ 주얼리 컬렉션은 링,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이어링까지 다양한 포인트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베를리 컬러 브레이슬릿은 옐로 골드 소재의 비즈 밴드 끝에 따스한 광채가 돋보이는 그린 말라이트 스톤으로 장식해 한층 더 유쾌하고 상쾌한 감성을 더한다. 반대쪽 밴드 끝에는 다이아몬드를 매치해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놓치지 않았다. 2천원만 원대, 문의 1668-1906



바다로의 초대

자연물 중 그동안 소매에 가장 큰 영감을 준 물. 이번에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물 중 드넓은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인다. 늘 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브랜드 소매에서도 바다를 모티브로 한 것은 처음. 이번 옹드 에 마르베유 드 쇼메(Ondes et Merveilles de Chaumet) 컬렉션에서는 실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파도에서부터 상쾌의 보물, 그리고 맥시 코만류로 흘러 들어가는 보트 등 풍부한 바다의 모습을 주얼리에 그대로 표현했다. 파도의 볼륨과 높이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다이아몬드 컷의 조합과 섬세한 디테일까지, 소매가 재해석한 바다의 모습은 더 푸르고 아름다울 것이다. 문의 02-3442-3359



SKIN TO SKIN

다가오는 가을, 한층 깊어진 분위기를 입고 싶다면? 샤넬 메이크업 크리에이션 스튜디오가 제안하는 스킨 투 스킨 컬러 메이크업을 눈여겨볼 것. 본래 내 피부인 듯 맑고 자연스러운 피부를 연출해주는 울트라 르 펴밍 파운데이션을 메인으로 섬세한 톤 조절로 완성한 루주 알뤼르 컬렉션과 베르니 네일 폴리쉬 컬러 팔레트가 자연스럽고 밝게 빛나는 피부를 위한 조력자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룩을 완성해줄 것이다. 문의 080-805-9638, CHANEL.COM

GRAFF.COM ©2022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아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INCREDIBLE TECHNIC

2022년 3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 놀라운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가 등장했다. 워치메이킹 기술의 절정이자 가장 상징적인 의미로 손꼽히는 투르비용을 적용한 바세론 콘스탄틴의 오버시스 컬렉션이 스칼레토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것. 18K 5N 핑크 골드 버전과 바세론 콘스탄틴 최초로 시계 전체에 그레이드 5 티타늄 소재의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버전, 두 가지로 선보이며 아름답고 간결한 전면 오픈워크 무브먼트와 정교하고 견고한 케이스는 물론 3월의 파워 리저브와 무브먼트까지, 손색없는 테크닉을 선사한다. 오로지 워치메이킹에 대한 자신감으로 탄생한 이 투르비용 스칼레토 워치에 경의를 표한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06



BACK to 90s

Y2K 패션 귀환의 종결 아이템, 헤어 액세서리. (위부터)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로 제작한 슬리드 헤어 스크런치 8만원 **말버러**, 문의 02-2018-1439, 아디다스와 협업해 선보이는 그린 로고가 돋보이는 헤어핀 79만원 **구피**, 문의 02-3452-1521, 로고를 전면에 장식한 예술적인 무드의 핑크 바넷트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포토그래퍼 **장진영** 에디터 **이주이** 어시스턴트 **신정림**

GRAFF BUTTERFLY



1 여행용 파우치로 활용하기 좋은 토일레트리 파우치, 26x14cm, 1백만원대
루이 비통, 2 그레이의 울 배라시아 피크트 라벨 텍사도 4백10만원대, 코트 포폴린 텍사도 셔츠 80만원대, 포켓 스케이로 활용한 라센 스퀘어 20만원대 모두 **밀프 로렌 퍼플 라벨**, 3 더블 G 디테일이 돋보이는 블랙 레더 레이스업 슈즈 1백30만원 구찌, 4 피트로 블랙 라지 웨딩 밴드 4백만원대 **부쉐론**, 5 40년 이상 숙성한 위스키 향미으로 밸런스에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로얄살루트 62간살루트 4백만원대 **로얄살루트**, 6 모노그램 바케타 레더 키 링 50만원대 **밀프 로렌 퍼플 라벨**, 7 실크 소재 모노그램 스프링클 보타이 20만원대 **루이 비통**, 8 블랙 카브 스킨 T 타일리스 벨트 40만원대 **토즈**, 9 브라운스 더블 팩 블랙, 41x30cm, 49만원대 **샘스나이트 블랙 라벨**, 10 스가죽 핑브리 로퍼 1백40만원 **차처스**, 11 동불량 익스트림 3.0 6cc 콤팩트 지갑 41만원 **몽블랑**, 12 컨스텔레이션 코-엑스텔 마스터 크로노미터 411MM 1천 백만원대 **오메가**, 13 가넷 블랙 레더 CT 민트필 90만 원 **워터맨**, 14 핑크 골드 버전의 자스트 앵 글루 브라운 컬러 1천만원대 **카르띠에**, 15 시드와 마스카가 아우라진 관능적인 느낌의 이모티비 우디향 블루 드 사셀 오드 퍼프랭 100ml 1729천원 **사셀 뷰티**.

루이 비통 02-3432-1854 **밀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구찌** 02-3452-1521 **부쉐론** 02-3213-2246 **로얄살루트** 02-3466-5700 **사셀 뷰티** 080-805-9638 **카르띠에** 1877-4326 **오메가** 02-3467-8632 **워터맨** 02-554-0911 **토즈** 02-3438-6008 **몽블랑** 02-1877-5408 **샘스나이트 블랙 라벨** 02-2007-2943 **차처스** 02-3479-1140

for him
Selection

말쑥한 면모와 능률한 에티튜드를 부여해줄 브라이드그룹 에센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Samsonite
 BLACK LABEL



1 허쉬의 유산을 계승하는 앙졸망은 디자인의 SINCE 1854 아이폰 트렁크 2백만원대 루이 비통, 2 스타드 장식의 인성적인 디자인 내외 다이아몬드 피에이 다이아몬드 4백2만원 타사키, 3 이상적인 실루엣을 부여해줄 뷔스티에 디테일이 특징인 아사벨 드레스 가격 미정 알렉산드라 by 소 유 브로이델, 4 핑크 메트로가 주 리넨 버전으로 선보이는 CD 트윈스 트스를 다음 카로 채운백, 20x12cm, 4백만원대 디올, 5 카멜리아 브로 치가격 미정 샤넬, 6 발착 가능한 펜던트로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는 조세핀 아그레드 일파라델 네크리스 9천1백30만원대 쇼메, 7 티파니 하모니 링, 티파니 하모니 밴드 링, 티파니 하모니 비드-세팅 다이아몬드 링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8 사르도네의 순수한 개성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는 페라에주에 불랑 드 블랑 750ml 10만원대 페라에주에, 9 이브닝 백으로 활용하기 좋은 세르펜티 주얼리 백, 16x13cm, 3백만원대 불가리, 10 스크 소재 한기시 펌프스 가격 미정 마블로 블라지, 11 윈 스타드 톱 핸들 백, 23x18cm, 4백20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12 크리스탈로 장식한 페이턴트 가죽 슬링백 1백57만원 미우미우, 13 유려한 곡선과 상쾌한 금사공 기술로 구현한 우아한 레트로 스타일링 피스 트래디션 워치 19MM 4천만원대 피아제, 14 로맨틱한 무드를 연출해줄 조명, 벨라 2428만원 라문, 15 신부의 걸음걸음마다 환상적인 반짝임을 선사해줄 플뤼드 까르띠에 아이리밍 가격 미정 까르띠에.

루이 비통 02-3432-1854 타사키 02-3461-5558 소유 브 라이델 02-541-7077 디올 02-3480-0104 까르띠에 1877-4326 쇼메 02-3442-3359 샤넬 080-805-9628 페라에주에 02-3466-5700 라문 1600-1547 피아제 1668-1874 티파니 02-6250-8620 미우미우 02-3218-5331 불가리 02-6105-2120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마블로블라지 02-3443-2113

for her Selection

해피 웨딩 데이! 그녀의 주인공, 신부를 위한 브라이덜 에센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래드 샹스 인피니 네크리스 무한과 영원의 상징인 팡-스카이에서 영감을 얻어 섬세하게 디자인된 곡선 형태로 행운의 부적을 상징하는 샹스 인피니 컬렉션. 다이아몬드의 눈부신 광채와 화이트 골드 인터레이스의 유려한 형태로 부드러운 강인한 여성성을 예찬한다. 6천7백만원대. 문의 02-514-3390

쇼메 조세핀 아그레드 일파라델 네크리스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황실의 여인이었던 조세핀 황후의 품격을 계승하는 주얼리. 반짝이는 물방울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황홀한 빛을 발하는 페어 컷 다이아몬드와 여성스러운 아름다운 품과 감각적인 매력을 더해준다. 1억3천만원. 문의 02-3442-3359

티파니 빅토리아 바인 드림 네크리스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으로 섬세하게 카팅한 라운드 & 마르즈 컷 다이아몬드 드로 핏과 영구, 일사규의 흔들리는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3천3백20만원. 문의 02-6250-8620

부세르 톨립 드 펌 M 펜던트 네크리스 우아한 자태의 공작 새 깃털을 모티브로 한 컬렉션. 깃털 하나하나에 섬세하게 새겨진 다이아몬드가 여성의 아름다운 몸의 곡선을 감각적이고 우아하게 빛낸다. 로즈 컷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광채를 발하는 펜던트 네크리스 3천만원대. 문의 02-3213-2246

불가리 디비스 드림 네크리스 로마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코닉한 부채를 모티브로 특징인 디비스 드림 주얼리. 오픈워크 디자인으로 화려한 디비스를 향한 경의를 표하며, 섬세한 다이아몬드 피에 새김으로 세련되고 여성스러운 품격을 겸비한 스타일을 제시한다. 1천9백만원대. 문의 02-6105-2120 에디터 이주이

Amazing Grace

드라마틱한 스테이트먼트를 선사하는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Exclusive Interview with_ 마누엘라 워스(Manuela Wirth) 대표

하우저앤워스의 30년 여정은 어떻게 유일무이한 메가 갤러리를 만들어냈을까

세계적인 아트 페어 프리즈(Frieze)가 오는 9월 초 서울에 입성하면서, 안 그래도 역동적인 미술 시장이 그야말로 후끈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미술 애호가, 특히 현대미술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그저 나들이 삼아 유유자적 아트 산책을 나서는 수준이 아니라 작가 목록은 물론 갤러리 명단까지 꼼꼼히 훑어보고 간만에 입시 공부하듯 리서치에 나서기도 한다. 가까이 지갑을 열 의향이 있는 진지한 컬렉터라면 결코 쉬이 작품을 대하고 페어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법이니까. 해외의 우수 아트 페어에 기본 적이 있다면 익숙한,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페어에서는 직접 접해보지 못한 내로라하는 갤러리 이름을 발견하면서 벌써부터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더러 눈에 띈다. 그중에는 하우저앤워스(Hauser & Wirth)라는 스위스 갤러리가 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업 회랑의 매출을 정확히 추적할 길은 없지만 흔히 현대미술을 둘러싼 생태계에서 글로벌 3대 브랜드로 꼽히는 메가 갤러리다. 개인적으로 메가 갤러리라는 개념을 추양하지는 않는다. 많은 이들이 그렇듯 특정 작가를 선호할 뿐이다. 사실 경영의 세계를 조금 안다면 아무리 거래 규모가 큰 메가 브랜드라고 해도 워낙 프라이빗 성향이 강해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힘든 데다 관계성에서 좌지우지되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경도된 조직 문화가 만연하기 일쑤인 갤러리 비즈니스의 세계는 요상하게 보이기 마련이다(물론 그래서 더러 매력적인 경우도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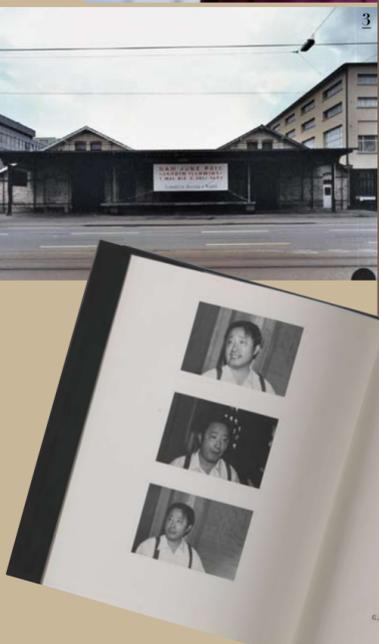


이런 배경에서 하나의 갤러리에 대해 지면을 할애해 긴 글을 펼치게 된 것은 하우저앤워스의 공동 창업자들이 나란히 동시대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꼽는 파워 100에서 1위(2015년, 아트 리뷰)를 차지했다든지 하는 가시적인 수치 때문은 아니다. 이 갤러리의 소속 작가를 전부 좋아하지도 않는다(90명 규모인지라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보다 '갤러리인지, 라이프스타일 기업인지, 아니면 미술 기관인지' 싶은 하우저앤워스의 독특한 다면적 정체성, '글로벌(glocal)'을 향하는 비전과 그 실천력에서 비롯된 관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탄생해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이 갤러리는 세계 곳곳에 다수(13개)의 지점을 두고 있고 가장 화려한 아트 페어에서 늘 돋보이는 콘텐츠를 선보이지만, 정작 그들이 제일 중시하는 프로

젝트는 영국의 전일 미술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도시 재생 지역,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보호받을 만한 지중해의 외딴섬에서 전개하는 '반전'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 세 곳의 공통분모는 '아트'를 중심축에 놓고 지역 커뮤니티와 협업을 유대를 쌓으며 문화 예술의 부흥과 지식 공유를 꾀하는 '아트 센터(Art Center)'라는 개념이다. 이 3색(三色)의 아트 센터를 돌아본 뒤 하우저앤워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 마누엘라 하우저(Manuela Hauser)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실천적 철학과 비전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눠 들어봤다. 그녀는 하우저앤워스의 반석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 갤러리스 트이자 컬렉터 우르술라 하우저(Ursula Hauser)의 딸이자 10대에 달려가 된 이라 할기 넘치는 경영 행보를 보여주는 공동 대표 아이반 워스(Iwan Wirth)의 아내이기도 하다.

#진심을 담은 전시와 출판으로 점철된 30년 여정

Seong Yeon Ko(이하 SY) 30년 전, 모친인 우르술라 하우저(Ursula Hauser)와 현재 남편인 아이반 워스(Iwan Wirth)와 함께 갤러리 비즈니스에 뛰어들기 전에 교편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에 관련해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당신에게 이 같은 직업 전환은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나요? (내향적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전혀 다른 커리어로 들어서는 게 꺼려지지는 않았는지? Manuela Wirth(이하 MW) 저는 이미 가장 넓은 의미의 창의성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예술, 공예, 요리 등을 가르쳤거든요.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은 처음 어머니에게서, 그 이후에는 아이반과의 공통된 열정에서 비롯됐죠. 저의 한결같은 롤모델인 어머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젊은 마인드에서 호기심이 넘치는 분이 1960년대 헝지 스위스 예술가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우리는 1992년 취리히의 외곽의 작크트 갈렌호, Gallen에서 공간을 열었는데, 처음엔 상업 갤러리라기보다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었죠. 10대 후반부터 갤러리를 운영해온, 기업가 정신 충만한 아이반 덕분에 사업의 동력을 얻었지만, 우리는 초기부터 늘 '작가(artist)'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2000년 공동 대표인 마크 파요(Marc Payot)가 합류해 우리 갤러리 가족의 매우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고요. 어머니는 이제 자선 활동에 집중하고 계세요. SY 그렇다면 경영진은 3인 체제인데, 명실상부한 메가 갤러리를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나요? 세계 곳곳에 지점을 두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시를 열고, 눈코 뜰 새 없이 아트 페어에 참여하며 소속 작가들의 미술관 전시를 뒷받침하는 등의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MW 지난 30년 동안 우리 갤러리는 글로벌 비즈니스로 발전했죠. 저희 셋은 비전을 공유하고 거의 모든 중대한 결정에 함께 하지만(다행히) 상호 보완적인 면이 많아요. 아이반은 아주 즉흥적이고 직관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가 지닌 특유의 창의력은 우리를 계속 긴장시키고 끊임없이 혁신을 꾀하도록 만들어요. 저는 천성적으로 좀 더 친척하고 합리적인 편이라 아이디어를 육상에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거듭하도록 돕지요. 마크는 미국에 거주하는데, 프랑스 예술계와 강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셋 다 소속 작가들과 매우 기밀에 지내고요. 그래서 내년에 파리 8구 상펠레르 근처의 이름다른 건축물에 새 갤러리를 여는 프로젝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Y 1993년에는 백남준 작가의 전시를 열기도 했는데, 당시 빈 공장 건물을 빌려 성공적으로 이뤄졌죠. 이 경험이 나중에 하우저앤워스가 어디에 공간을 열지 선택하는 데 어떤 단서들을 심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는 백남준 탄생 90주년이기도 합니다. MW 백남준은 우리가 대단히 존경하는 작가예요. 당시 우리는 취리히 서쪽의 공업 단지에 있는 빈 공간을 빌려 전시를 하자는 제안을 했죠. 그렇게(Jardin Illuminé)라는 전시가 탄생했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팝업' 개념의 전시였고 피플로티 리스트(Piplotti Rist)와의 첫 협업이기도 했어요. 피플로티는 그 전시의 도록 예세(冊)를 직접 쓰기도 했고요(세계적인 영상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피플로티 리스트는 2012~2013년 영예에 있는 아트 센터 하우저앤워스 서머스의 첫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소화한 작가이기도 하다). 예상치 못한 뛰어난 건축 공간을 짓는 것은 우리 갤러리의 DNA가 된 것 같아요. 1996년에는 애-클렐드 르프(Annabel Seidori)의 설계로 양조장으로 쓰던 건물을 개조해 취리히에 공간을 열었죠. 저희는 역사적인 건물을 복원하고 주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현대미술 공간으로서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공간적 소통을 이루는 방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SY (위한 아카이브로 남을) 백남준 도록도 그렇지만 전시 도록이나 단행본, 장기 간행물 등 미술 출판 영역에서 진정성 어린 행보를 보여 왔잖아요. 저도 모친인 우르술라 하우저의 컬렉션 여정을 다룬 단행본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을뿐더러 하우저앤워스 출판에서 서니온 책들에 감탄합니다. MW 저는 애사자이고, 아이반과 마크도 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죠. 1992년에 설립한 하우저앤워스 출판 부문은 아주 역동적인 임프린트로 성장했는데, 그동안 작가 아카이브와 저자들에 중점을 둔 1백50여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많은 책이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감성을 정려할 만한 독특하고 소장 가치 있는 오브제 같은 수준의 책들입니다. 책은 우리 아티스트에게 있어 창의성이 지닌 새롭지만 고대된 측면을 세상에 알리는 대사(ambassadors) 같은 존재죠.



11992년 스위스 취리히의 한 아파트에 당시 건물에 들어선 하우저앤워스(Hauser & Wirth) 갤러리. 우르술라 하우저(Ursula Hauser)와 그녀의 딸 마누엘라 워스(Manuela Wirth), 10대 후반부터 둘이 커리어를 쌓은 아이반 워스(Iwan Wirth)가 함께 시작했죠. Courtesy Hauser & Wirth 2 갤러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마누엘라 워스(1963년생, Photo by Sim Canetty-Clark Courtesy Hauser & Wirth 3 하우저앤워스 갤러리는 1993년 취리히 서쪽의 공업 단지에 빈터를 빌려 작가 백남준의(Jardin Illuminé)라는 전시를 열었다. Exterior view of the space on Hardtumstrasse in Zürich, 1993. Photo by Bruno Weber 4 백남준의 1993년(Jardin Illuminé) 전시 도록. 세계적인 영상 작가 피플로티 리스트(Piplotti Rist)가 도록 글을 썼다. 이미지 재로 하우저앤워스 5, 7 영국 하우저앤워스 서머스에서 2019년 열린(Unconscious Landscape, Works from the Ursula Hauser Collection) 전시 풍경. 여성 작가에게 초점을 맞춘 우르술라 하우저의 개인 컬렉션 중 루이즈 부르주아, 마리아 라싱, 실라 워스, 에바 헤세 등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 65점이 전시됐다. Hauser & Wirth Somerset Photo by Ken Adlard 6 스위스 아티스트 메렛 오펜하임(Meret Oppenheim)의 초현실주의 작품 Fur Gloves with Wooden Fingers(1936). 우르술라 하우저 컬렉션 작품이다. Fur gloves, wooden fingers, nail polish, 5 x 21 x 10 cm, © DACS 2019 Courtesy of the Ursula Hauser Collection, Switzerland Photo credit by Stefan Altenberger Photography Zürich 8 뉴욕 자택에서 포즈를 취한 우르술라 하우저(2018), 배경에 에바 헤세와 필리다 발로의 작품들이 보인다. Left: Eva Hesse, H + H, 1965 © The Estate of Eva Hesse. Courtesy Hauser & Wirth Right: Phyllida Barlow, untitled: smoothcoil, 2012 © Phyllida Barlow, Courtesy Hauser & Wirth Photo by Axel Dupeux 9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하우저앤워스 출판 사업 부문. Courtesy Hauser & Wirth Publishers Photo by Sim Canetty Clark 10 하우저앤워스 출판 부문에서 선보인 20세기 개념미술의 선구자 미르셀 뒤샹의 카팅로그 레조네(전작 도록) 표지. 뉴욕 타임스 선정 2021년 최고 미술 서적 목록에 올랐다. 11 하우저앤워스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3인방(우르술라 하우저, 마누엘라 워스, 아이반 워스). Photo by Sim Canetty-Clarke 12 오는 9월 초 개관하는 부산엔솔에 참여 작가인 필리다 발로의 설치 작품. Installation view, Phyllida Barlow, glimpse, Hauser & Wirth, Los Angeles CA February 17 – May 8, 2022 © Phyllida Barlow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Photo by Zak Kelley



#예술을 통한 공유, '아트 센터' 모델

SY 이제 하우저앤워스의 독특한 모델인 '아트 센터(Art Center)'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서머스 아트 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의 교육을 맡다가 이제는 하우저앤워스의 학습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글로벌 디렉터인 데비 힐러드(Debbie Hillyerd)에 따르면 아트 센터를 떠날 때는 핵심은 지역 커뮤니티를 서로 연결시키는 학습 활동을 동반하는 활기찬 현대미술 전시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MW 아트 센터 프로젝트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화했어요. 서머스에서 18세기 농장을 발견하고는 이 유사 깊은 건물을 보존하고 아주 근사한 전경에서 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한 데서 비롯되었죠. 저희 집이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타전으로 택한 곳이었죠. SY 하우저앤워스 서머스에 있는 브루튼(Bruton)은 서머스에서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아무런 의외의 장소를 택했다고는 하지만, 우르술라는 비는 없었나요? MW 전통적인 갤러리 모델을 넘어선 하우저앤워스의 모든 프로젝트에는 항상 우리 아티스트들과 그들의 예술을 발견하고 육성하며 지역 사회와 소통하려는 우리의 열정이 담겨 있어요. 개관한 지 8년이 된 지금, 전시 공간 뿐 아니라 활발한 학습 프로그램, 피트 아우돌퍼(Fred Oudhof)의 정원, 아티스트 레지던시,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도 있습니다. 우리 갤러리 소속 작가들도 프로젝트 초기에 방문 했는데 그들 각자해왔어요. 피플로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1호 작가인데, 그이후로 18명의 작가를 모았죠. SY 로스앤젤레스의 메노라(Menora)의 경우는요? 어떤 잠재력을 봤나요? MW 일단 서머스 시에 로스앤젤레스 갤러리의 모델이 되었죠. 우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아티스트들의 스튜디오 방문차 로스앤젤레스로 여행을 자주 했는데, 항상 도시의 에너지를 사랑했어요. 우리 갤러리의 최초의 전속 작가인 제논 로드(Jason Roads)의 소개로 그곳의 예술 환경에 대해 알게 됐어요. 1970년대 버러진 공장의 광활한 공간이 예술가들을 끌어들이는데, 그들은 이 지역을 다급 개척하자 나섰고 지금 아츠 디스트릭트(Arts District)라고 불리는 창조 산업의 허브로 점진적으로 진화시키는 데 있어 초기 동력이 됐죠. SY 그런 의미 있는 경험이 메노라 프로젝트로도 이어졌어요. MW 메노라는 완전히 바뀐 깊은 장소예요. 사(社) 6세(世)의 리라(里) 유적에서 볼 수 있듯이 수천 년 동안 사색의 장소였어요. (현재 하우저앤워스가 있는) 이슬라 밀 레베를 처음 방문했을 때 역사적인 건물을 보존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고자 하는 (지역 차원의)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았어요. 이 아트 센터는 5년간의 보존 프로젝트 끝에 최근에 문을 열었는데, 개관자인 마크 브래드퍼드(Mark Bradford) 전시(제 5만 8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어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성의 보존을 돕는 관리인으로 합류하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Y 하우저앤워스를 가려 갤러리가 아니라 미술 기관 같은 얘기를 많이들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메가 갤러리 규모 면에서도 1인자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성장세가 두드러진 메가 갤러리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경쟁하지 못한, 결코 운 좋았다고 자랑하지 않을 수준으로 향해 가고 있는 듯한데요? MW 예술가에 대한 열정과 예술, 배움의 심을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으로 길을 열고 있었어요. 언제나 예술 세계의 한계를 넘어 따듯하고 포용적인 갤러리를 만들고 싶었고, 앞으로 성장을 거듭하더라도 이러한 핵심 가치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줄 것 같고 믿습니다. 글 고정연

#여성 아티스트와 우르술라 하우저 컬렉션(The Ursula Hauser Collection)

SY 하우저앤워스는 여성 아티스트들의 리얼리티를 탄탄한 갤러리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우저앤워스 서머스에서 2019년 전시로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던 모친의 우르술라 하우저 컬렉션(The Ursula Hauser Collection)도 여성 작가에 초점을 맞춘 소집품 컬렉션으로 유명하잖아요. 아직도 작가들이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MW 고사 시점부터 저는 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더 평등한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교육의 힘을 깨달았어요. 배움의 지평을 넓히는 데 대한 제 관심은 모든 보집성 속에서 다루는 강제로 직업을 하는 여성 예술가들의 이야기로 공유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갤러리가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소피 타우버아르프(Sophie Taeuber-Arp), 에바 헤세(Eva Hesse), 마리아 라싱(Maria Lassnig)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부터 피플로티 리스트, 로나시프슨(Lorna Simpson), 에버리 싱어(Avery Singer), 에이미 셰럴드(Amy Sherard) 등이 이르기까지 강력한 동시대 목소리를 내는 예술가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여러 면에서 개선됐고, 현대미술계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술 생태계가 모든 형태의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 되었죠. SY 루이즈 부르주아는 실제로 당신의 눈에 어떻게 비쳤나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주 오래 인연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W 최고의 여성 예술가이론이죠. 그녀는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인 동시에 어머니이자 아내, 그리고 심오한 사상가이자 불굴의 창조력의 상징이 있었어요. 우리는 1992년 루이즈의 작품을 처음 봤었고 뉴욕에 있는 그녀의 집이 아주 스투미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점차 관계를 쌓아갔어요. 1996년 취리히에서 갤러리 레드 룸(Red Room)과의 첫 번째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건 작가와의 깊고 특별한 관계의 시작점이었죠. 이후 우리는 런던, 로스앤젤레스, 서머스, 취리히, 샌프란시스코, 홍콩 등에 있는 하우저앤워스 갤러리에서 그녀의 작품을 선보였어요. 오는 9월 서머스에서 새 전시도 기대해요. SY 그녀가 2010년 세상을 뜨기 전에 영국 작가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과의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당시 상당히 공공하네요. 둘 다 강력한 커뮤니티만 다른 개념을 지녔고, 세대 차도 꽤 있었죠? MW 부르주아가 중년에 남녀 몸통의 옆모습을 그린 뒤 둘과 함께 빨강, 파랑, 검정 구아슈 안료를 섞어 색채하고 유동적인 실루엣을 만드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부르주아는 그 이미지들을 에민에게 남겼고요. 에민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난 후추에서 프랑스까지 그 이미지들을 지닌 채 전 세계를 돌았지만 너무 무서워 손도 대지 못했어." 결국 에민은 부르주아의 향수에 환상을 불어넣고, 소년과 사람들처럼 작은 인물을 그려서 에민의 욕망과 불안을 구현했어요. 에민의 손 끝에는 이미지에 내러티브를 새겨 넣었습니다. 부르주아의 생생한 구아슈에 표현된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서요. 이 핀화 모음은 부르주아가 2010년 별세하기 전 미친마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아주 강력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2011년 부르주아-에민 전시가 런던에서 열렸죠.



트(Arts District)라고 불리는 창조 산업의 허브로 점진적으로 진화시키는 데 있어 초기 동력이 됐죠. SY 그런 의미 있는 경험이 메노라 프로젝트로도 이어졌어요. MW 메노라는 완전히 바뀐 깊은 장소예요. 사(社) 6세(世)의 리라(里) 유적에서 볼 수 있듯이 수천 년 동안 사색의 장소였어요. (현재 하우저앤워스가 있는) 이슬라 밀 레베를 처음 방문했을 때 역사적인 건물을 보존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고자 하는 (지역 차원의)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았어요. 이 아트 센터는 5년간의 보존 프로젝트 끝에 최근에 문을 열었는데, 개관자인 마크 브래드퍼드(Mark Bradford) 전시(제 5만 8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어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성의 보존을 돕는 관리인으로 합류하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Y 하우저앤워스를 가려 갤러리가 아니라 미술 기관 같은 얘기를 많이들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메가 갤러리 규모 면에서도 1인자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성장세가 두드러진 메가 갤러리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경쟁하지 못한, 결코 운 좋았다고 자랑하지 않을 수준으로 향해 가고 있는 듯한데요? MW 예술가에 대한 열정과 예술, 배움의 심을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으로 길을 열고 있었어요. 언제나 예술 세계의 한계를 넘어 따듯하고 포용적인 갤러리를 만들고 싶었고, 앞으로 성장을 거듭하더라도 이러한 핵심 가치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줄 것 같고 믿습니다. 글 고정연

a field Embroidered with Art

그림 같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전원(田園) 풍경을 배경으로 아찔하지만 예쁜 마을이 많기로 유명한 영국 남서부 서머셋(Somerset) 카운티. 서머셋에서는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온천 휴양지 바스(Bath)가 손꼽히는 '스타 도시'지만, 미술 애호가라면 아마도 '버킷 리스트'에 다른 후보지를 올려줬을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 목가적인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땅에 자리한 브루턴(Bruton)이라는 아담한 마을이다. 영국인들에게 도시와 동떨어진 곳을 찾아 떠나는 '슬로 리트릿(slow retreat)' 여행지로 왜 인기가 있냐면 필자에게는 오랫동안 길망해온 진짜 '목적지'가 따로 있었는데, 다음 아닌 하우스앤워스 서머셋(Hauser & Wirth Somerset)이다. 단순한 상업 갤러리를 넘어선 독특한 복합 모델을 제시한 하우스앤워스의 아트 센터 1호다.



하우스앤워스(Hauser & Wirth)라는 세계적인 갤러리 브랜드로 인해 당당히 유명세를 탄 영국 브루턴(Bruton). 인구가 약 3천 명에 지나지 않지만 특유의 아름다운 풍경과 미적으로 이미 지역민들에게는 온전한 사랑을 받아온 작고 한적한 마을이다. 지난 6월 초, 브루턴으로 향하는 길은 여럿이지만 필자는 런던 패딩턴 역에서 기차를 탔다. 시골마을을 잘 고르던 한 번만 걸어도 2시간 내버려두면 역에 도착한다. 그리고 무거운 짐만 없다면 기차역에서도 보로 10분 정도면 하우스앤워스 서머셋에 다다를 수 있다. 친절하게 놓인 팻말을 따라 걸노라면 동화 같은 마을 풍경을 배경으로 초여름의 싱그러움은 녹음으로 빛나는 산울타리가 길게 펼쳐진 산책길이 나온다. 이국적 풀밭 위로 웅기종기 모여 있는 예술 농장의 자태가 드러난다. 실제로 하우스앤워스 서머셋이 자리 잡은 땅은 18세기 중엽에 지은 더슬레이드 농장(Durslade Farm)

부지로 찰리메트 비누슈와 조니 뭉크의 영화 <초콜릿> 촬영 장소로 쓰이기도 했다. 마침 주말인 데다 새로운 전사가 막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꽤 복잡했다. 영국이 낳은 추상 조각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헨리 무어(1898~1996) 전시 <Henry Moore. Sharing Form>.

#팔색조 '예술 농장'을 무대로 자연과 조응하는 예술
우선 갤러리 부지에 들어서면 시선을 압도적으로 잡아끄는 하얀색 대형 조각 <The Arch>(1963/69). 6m 넘는 높이의 거대한 조각이 자아내는 오르막을 느끼며 갤러리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5개의 전시실에 걸쳐 60년 넘는 작가의 커리어를 수놓은 다양한 작품이 관객을 맞이한다. 신석기 시대의 거석 냄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스톤헨지(브루턴에서 자동차로 1시간 내 거리

에 있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무어의 스키퍼와 색면회화부터 청동, 섬유유리, 돌 등 다양한 소재의 크고 작은 조각 작품들, 그리고 이번 전시에 직접 참여한 작가의 딸 메리 무어(Mary Moore)가 부친의 추억에 얽힌 오브제 등 각종 소장품을 모아놓은 정감 어린 색채까지... 사실 헨리 무어는 갤러리 소속 작가가 아니라 브루턴 하우스앤워스 미술동 강계를 낚는 다채로운 방식의 협업을 가까이 시도해왔다(이곳에 머무는 레지던시 작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우스앤워스 소속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갤러리 내부 투어를 마치면 숨을 한 차례 들이켜고 마을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갤러리 건물과 서점 등으로 둘러싸인 인공 돌을 통과해 다시 밖으로 향하면 명성 지대한 아우돌프기든(Oudolf Field)이 무어의 야외 조각장과 함께 기다리고 있어서다. 네덜란드 조각가 피터 아우돌프(Piet Oudolf)의 솜씨로 여왕해살이풀들이 저마다의 맵시를 뽐내며 자연스럽고도 요란 조화를 발하는 이 실외 정원! 아주 웅만한 경사를 타면서 길게 펼쳐지는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지만 결코 요란스럽지 않다. 먼 길을 찾아온 바쁜 여행자에게도 잠시 속도를 늦추고 쉬어 가라고 등을 토닥여주는 듯한 포근함이 깃들여 있다. 정원 산책길 끝에는 칠레 건축가 스미한 라디(Smjan Radic)의 타원형 파빌리온이 다정다정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기도 하다. 아트 토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쓰이긴 한 번이었을 뿐 아이들!이 슬퍼꼭질을 하는 놀이터도 된다.

#지역 커뮤니티와 다각적 연대를 쌓아가는 공유 플랫폼
2014년 여름, 영국 아티스트 필리다 발로우(Phyllida Barlow) 전시 <GIG>와 피터 아우돌프의 조경 미학을 담은 드로잉 전시 <Open Field>로 대중의 문을 활짝 연 이래 하우스앤워스 서머셋에는 9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왔다. 단지 전시만 보러 오는 인파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하우스앤워스 정원! 상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더슬레이드 농장은 아트 호텔도 탈바꿈한 게스트하우스, 갤러리와 오랜 인연을 지닌 작가 집단의 성을 만 로스 바앤드 그릴, 농장 부지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파는 상점 등의 '하드웨어'가 깔려 있을 뿐더러,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들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비버리 큐티 같은 콘텐츠도 일차기 구비했다. 지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해온 워크숍 등 학습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개관 이래 참여한 크고 작은 교육기관이 무려 500곳이다. "하우스앤워스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대부분 알아나 버릴까 하는 반응이었는데, 벌써 8년이 됐네요.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고요." 브루턴의 한 주민이 필자에게 건넨 말이다. 하우스앤워스의 공동 창립자 마누엘라(Manuela)와 아이반 워스(Ivan Wirth) 부부는 이 전원 마을의 매력에 빠져 일찌감치 가족 단위의 이주를 감행했고 버려지다시피 했던 더슬레이드 농장 부지도 싶지만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열망이 향하는 방향만큼은 확실했다. '갤러리, 아티스트 스튜디오, 음식식문화, 교육'. 이런 요소들이 지역 공동체와의 끈끈한 유대를 쌓아가며 어우러지는 아트 센터의 개념은 그렇게 영감을 받았다. 글 & 사진

1 무어해살이풀들이 아늑하게 조화를 이루어 사사처럼 다른 풍경을 연출해내는 아우돌프 정원(Oudolf Field) 모습. 하우스앤워스 서머셋-Hauser & Wirth Somerset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Photo by Jason Ingram 2 지난 5월 28일 개관한 <Henry Moore. Sharing Form> 전시 모습. 3 Henry Moore, 'The Arch', 1963/69. 하우스앤워스 서머셋 갤러리 부지에 들어선 제일 먼저 관람객의 시선을 잡아끄는 야외 전시 작품. 2, 3 Hauser & Wirth Somerset, 2022. Photo by Ken Adlard Courtesy Hauser & Wirth. Reproduced by permission of The Henry Moore Foundation 4 하우스앤워스 서머셋 갤러리 내부. 갤러리, 서점, 레스토랑, 교육 공간 등을 지닌 하우스앤워스 서머셋은 지역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문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Photo by SY Ko 5 브루턴 기차역에서도, 브루턴 마을의 중심부(타운센터)에서도 도보 10분 정도(상인 걸음 기준)만 걸 수 있는 하우스앤워스의 산책길도 유명하다. Photo by SY Ko 6 아우돌프 정원의 산책길 끝자락에는 칠레 건축가 스미한 라디(Smjan Radic)이 설계한 라디 파빌리온(2014)이 자리하고 있다. Photo by Jason Ingram



상당수 한국인이 그렇듯 필자에게도 로스앤젤레스는 친척들이 교포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익숙하게 느껴지는 도시였다. 많은 도시가 그렇듯 남들이 무감각하게 스쳐 지나갈 때도 그 이면에는 히로야카의 파도를 거뭇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적어도 외부인의 시선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인상적인 '혁신'이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누군가의 표현처럼 '도시가 스스로에 대해 자상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변화의 노력에 박차를 가한 꾸준한 행보 덕분일까, 스페인어로 천사의 도시라는 뜻을 지닌 이 도시는 다시 날개를 단 듯했다. 처음에는 우연히 느낀 그 변모의 매력을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로스앤젤레스를 몇 차례 방문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팬데믹이 도래하기 전이다). 그 기저에는 다양한 동력이 있지만 그중에는 문화 예술 콘텐츠는 물론이고 미식, 호텔 등 여러 영역에서 훨씬 더 활기 있고 세련된 풍경을 지니게 된, 한때 빛을 잃었던 다운타운의 부활도 있었다. 그리고 다운타운의 동쪽 끝에 자리한 아츠 디스트릭트(Arts District)의 부상은 아주 흥미로운 변화로 다가왔다.

#쿨하고 힙한 도시 재생 사례, 하우스앤워스 로스앤젤레스의 다운타운 입성
요즘 '이츠 디스트릭트'라고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얘기하면서 상인들이 푸념을 일삼을 정도로 핫한 동네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쿨한 빈티지 감성'이 물어내는 세련됨이 있다. 하지만 원래는 이름처럼 문화 예술의 기운이 넘실대는 곳이야 아니었다. 감공류 과일을 재배하는 과수원, 포도밭 등이 넘쳐났던 시기를 거쳐 공장이 가득 들어서기도 했다(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식막하고 별량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던 시절의 매력 없는 동네로 기억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다가 예술가들이 버려진 공장 부지에 작업실을 차렸고, 서서히 변화의 곡선을 타기 시작했다. 또 MOCA의 별관인 게펜 컨템퍼러리(The Geffen Contemporary at MOCA)가 1983년 이후 자리를 지켜오며 'arts'라는 브랜드를 걸었던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그래도 전체 그림을 바꾸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새 이곳의 풍경은 사뭇 달라졌다. '힙한 느낌'의 근사한 카페와 레스토랑, 바, 호텔이 많이 생겨나고 유동 인구가 늘었다. 예술가 집단의 인구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대신 대중을 위한 아트 스페이스는 물론 상업 갤러리, 건축설계 사무소, 촬영 스튜디오 등이 속속 들어섰다. 그 중심에는



Welcome to the Arts District

미국, 아니 세계 현대미술 생태계를 이끄는 도시를 둘러싼 단연 뉴욕이 선두 주자라 꼽히지만 언젠가부터 서부를 대표하는 로스앤젤레스의 존재감도 숫구치기 시작했다. 할리우드를 등에 업은 영화 도시로서만이 아니라 미술, 건축, 음악 등 대체로 콘텐츠 스펙트럼을 지닌 문화 예술의 허브로서도 '싱싱' 무드를 타고 있다는 얘기가. 원래도 로스앤젤레스,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 출신의 걸출한 작가는 많았지만 '컨템퍼러리(contemporary)'라는 단어로 잘 어울리는 빼어난 공간이나 콘텐츠는 아무래도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변화의 물결이 차츰 퍼져나갔다. 주요 공공 미술관이 재단정에 나서고, 2015년 역민정자 엘리 브로드가 사치를 들여서 온 현대미술관 더 브로드(The Broad)가 다운타운에 등장했으며, 이듬해에는 하우스앤워스 로스앤젤레스(Hauser & Wirth Los Angeles)가 문을 열었다. 갤러리 자점 하나 생길 게 대수냐 싶겠지만, '뮤지엄급' 전시장을 갖추고 동네의 문화적 자까지 번모시킴 만큼 독특한 오리를 지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1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츠 디스트릭트(Art District)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하우스앤워스 로스앤젤레스(Hauser & Wirth Los Angeles)의 갤러리 건물(2016년 모습). Photo by Phoebe Solomon 2 하우스앤워스 로스앤젤레스의 인물이 있는 정원 풍경. 이미지 제공: Hauser & Wirth Los Angeles 3 오는 9월 부산비엔날레와 프리즈 서울에서 선보일 이브닝/나 태생의 작가 미카 로텐버그(Mika Rotenberg) 개인전이 현재 하우스앤워스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 중이다(오는 10월 29일까지). © Mika Rotenberg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Photo by Zak Kelley 4 2019년 하우스앤워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필립 구스톤(Philip Guston)의 전시 모습. © The Estate of Philip Guston Courtesy the Estate and Hauser & Wirth Photo by Fredrik Nilsen 5 일부 유명 공간 단지를 갤러리(이 아너 유가)를 레스토랑 마누엘라(Manuela), 미술 서점 등을 갖춘 대형 갤러리 공간으로 변신시켜 도시 재생 건축의 모범 사례를 남긴 하우스앤워스 로스앤젤레스. Hauser & Wirth Los Angeles, 2019 Photo by Elton Schoenholz ※ 전체 이미지 제공: 하우스앤워스

2016년 이 지역에 문을 연 하우스앤워스 로스앤젤레스가 빈번히 언급된다. 단순히 메가 갤러리의 한 지점이라기에는 많은 이들이 '미술관(museum)'이라고 자언처럼 부를 정도로 존재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우선 공간 자체가 눈길을 잡아끈다. 갤러리-아우트 리치 규모를 자랑했지만 1960년대 중반 경영 부진으로 폐쇄된 글로브 밀즈(Globe Mills)라는 밀가루 공장 단지를 갤러리(이 아니라 유가)를 레스토랑 마누엘라(Manuela), 아트 북 스텍을 갖춘 독특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멋지게 부활시켰다. '1백 년 역사의 버려진 제분소는 갤러리 분점을 낼 때 되도록 그 지역의 역사적 유산으로 여겨지

는 건물을 개조한다는 방향성을 지닌 하우스앤워스다운 선택이다.



#'창조 허브' 아츠 디스트릭트의 부상과 '공동체로서의 에너지'
마누엘라와 아이반 워스 부부에게 로스앤젤레스는 원래도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방문하러 지루 찾은 도시로 특유의 에너지를 사랑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티스트 제이슨 로드(Jason Rhoades)의 추천으로 아츠 디스트릭트의 매력과 잠재력을 포착했고, 셸도르프 아키텍처와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의 창조적 설계 협업으로 하우스앤워스 로스앤젤레스를 탄생시켰다. 116,000㎡ 면적에 이르는 이 공간은 제분소 건물 말고도 옆 연평 건물 등으로 이뤄진 '다'형의 커다란 복합 단지(이게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어떤 건물에 따라 달라 느끼)가 된다. 예컨대 '시우스 갤러리의 경우 높은 천장을 둔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이라 고풍스러운 느낌을 풍기고, 밝고 경쾌하고 시원하게 펼쳐진 안뜰은 마치 야외 공간처럼 같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현대미술 전을 공연이 나 퍼포먼스, 파티 같은 행사가 열리며 도시의 아트 퍼플렉스(아니라 동네 주민 혹은 학생들도 끌어모으곤 했다. 필자가 2019년 방문했을 때는 온종일 소속 작가 찰스 게인즈(Charles Gaines)의 개인전 오프닝이 있는 날이었는데 웰컴, 제프 공간이 신나게 펼쳐지고 있었다. 알고보니 당시 연주를 하던 밴드에서 '드라마'로 열성히 비트를 쪼개고 있는 인물이 바로 작가였다. 하우스앤워스 로스앤젤레스 역시 서머셋에 이은 제2의 아트 센터(이곳에 대중, 특히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대체로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1백30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참여하니 그 흥운도를 짐작할 만하다. 예컨대 고등학교 '꿈나무들'은 4주간 갤러리의 실마 현장을 경험하는 워크숍을 비롯해 이 도시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마크 브래드퍼드가 이끄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비미술인 지역민들이 하우스앤워스 로스앤젤레스를 입문처럼 '뮤지엄'이라고 칭하는 데는 매혹적인 공간의 환원이 아니라 같은 대체로 내실 있는 콘텐츠의 힘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글 & 사진

a new Mediterranean Art haven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리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2020년 봄, 스페인의 한 섬을 배경으로 한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의 상징모도 같은 '거미' 조각 미망(Maman)이 놓인 VR(가상현실) 이미지를 접하고는 여러모로 경탄을 금치 못한 적이 있다. 바로 하우스앤워스에서 이듬해 오픈할 예정이었던 메노르카섬을 미리 소개하는 자료였는데, 천혜의 자연 속 조각 자체의 존재감, VR 모델링 툴 같은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열심인 현대미술 갤러리의 진보적인 면모, 그리고 또다시 의외의(?) 장소에 아트 센터를 세우겠다는 참신한 발상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지중해의 눈부신 풍광을 머금은 발레아레스제도의 섬들은 유럽인이 사랑하는 휴양지다. 규모가 가장 큰 마요르카, 파티 천국으로 유명한 이비사 같은 섬들이 있다. 그런데 그중 지명도가 낮은 편인 메노르카를 짚히다니, 호기심이 절로 솟을 수밖에. 지난해 여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개관 1주년을 맞이한 하우스앤워스 메노르카(Hauser & Wirth Menorca)를 얼마 전 직접 찾아가 봤다.



숨겨진 보석(hidden gem)이라는, 흔히 쓰이는, 그래서 시큰둥해지기도 하는 수사가 진정으로 들어맞는 경우도 있다. 메노르카(Menorca)라는 작은 섬도 여기에 해당된다. 사실 교통편이 그리 흔치는 않기에 대개 유럽 내에서도 마요르카를 거쳐 두 번의 비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바로 그런 제약 덕분에 이 섬은 섬은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 채 고유의 매력과 자연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필자도 유럽에서 자라난 늦깎이 학생 시절 우연히 마요르카를 여행한 적이 있었지만 메노르카까지 진출하진 못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우스앤워스의 세 번째 아트 센터가 들어선 땅은 정확히 말하자면, 메노르카에서도 배를 타고 10~15분 정도 가야 나오는 이슬라 델 레이(Isla del Rey)라는 또 다른 섬이다. 왕의 섬이라는 뜻을 지닌, 섬 전체 면적이 40,000㎡에 불과한 작은 섬이다. 그렇다면 꼭대 높은 메가 갤러리의 뒷세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 소수만을 위해 지은 전당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하우스앤워스 메노르카는 지난해 마크 브래드퍼드(Mark Bradford)의 전사로 갤러리의 문을 연 데 이어 올해에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작가 라시드 존슨(Rashid Johnson)의 개관전을 마련했다. 오프닝 전야 행사의 풍경을 보면 이 방식이 않은 갤러리가 어떤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6월 18일, 아직은 어슴푸레하게나마 빛이 남아있는 여름날의 저녁, 이슬라 델 레이에는 보트 행렬이 이어지고 편안하지만 멋스러운 스타일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선착장에 내려 왼편을 보면 옛 해군 병영으로 지금은 박물관으



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Fundació de l'Hospital de l'illa del Rei 지단 운영이 사이에 들어오고, 하우스앤워스 병행으로 가는 오른쪽 길목에는 작은 악단이 펠파르를 울리면서 손님들을 환영한다. 자택에도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를 병풍처럼 두른 야외 정원엔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는데, 어림잡아 5백 명이 넘는 듯했다. '메노르카섬 주민들이 뿔뿔 뿔 뿔'이라는 식의 농담을 주고받을 만도 하다(메노르카의 인구는 10만 명 정도이고, 이슬라 델 레이에는 상주인구가 없다). 실제로 전부를 보기 위해 유럽 각지에서 찾아온 문화 예술계 종사자도 많았지만, 섬 주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모두가 갤러리가 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전시 자체, 그리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은 철저히 이곳을 찾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 어쩌면 당연한 풍경이 아닐까 싶다. '이슬라 델 레이'는 사에 속한 공유지인데, 2004년부터 복원 작업이 진행되어왔어요. (이 취지에 깊이 공감한) 저희 갤러리는 일부 부지(1,500㎡)를 갤러리와 레스토랑, 아트 스툴 등을 갖춘 아트 센터로 활용하기로 하는 임대 협정을 맺었고요.' 하우스앤워스 메노르카의 디렉터 마르 레스칼보(Mar Rescalvo)의 설명이다.

#문화유산과 자연, 그리고 예술의 수호자를 지켜하다
그러하여 전격 기동한 메노르카 프로젝트에는 서머스의 핵심 인력이 동원됐다. 서머스의 기적을 만든 피트 아우스트프가 지중해 기후에 맞는 풍성한 집안과 형태를 지닌 다양한 식물로 채운 정원을 만들었고, 역시 '서머스 프로젝트' 멤버인 루이즈 라플라스(Louis Laplace)가 건축설계를 맡았다. 글로벌 문화유산의 보존, 지역과의 공생, 차세대 재능을 발굴하고 키운다는 하우스앤워스의 비전에 공명한 작가들도 출현수비 돕고 있다. 개관전의 주인공 마크 브래드퍼드는 지난해 메노르카에서 한 달가량 머물면서 지역 미술학교 학생들을 만나고 '에듀케이션 랩을 설립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에 (Sodade) 전시로 메노르카를 찾은 라시드 존슨도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신의 전시 포스터 판매 금액 전액을 지역의 야생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서머스의 교육 담당으로 커리어를 시작해 지금은 하우스앤워스 글로벌 '러닝(learning)' 디렉터를 맡고 있는 데비 힐러드(Debbie Hillard)를 드디어 메노르카에서 만났는데, 그녀는 이 센터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문적인 맥락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방식에 대해 확실히 시기를 트이게 해줄 수 있어요. 젊은 예술인들로 하여금 우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해 배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응징력을 복돋는 공간을 누릴 수 있게 하면서요." 머지않아 이곳에는 서머스가 이어 두 번째로 하우스앤워스의 작가 레지스전 프로그램도 생길 예정이라 아마도 메노르카와 이슬라 델 레이 사이에서 보트를 타고 오가며 공부하는, 미래 예술가를 꿈꾸는 아이들의 눈은 한층 초롱초롱 빛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글 **고성연**



1 하우스앤워스 메노르카(Hauser & Wirth Menorca)의 갤러리 이외에 전시된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의 거미 조각 작품, 'Spider'(1994). on © The Easton Foundation/DACS Courtesy The Easton Foundation and Hauser & Wirth 2, 3 스페인 메노르카에서 살며 촬영한 작은 섬 이슬라 델 레이(Isla del Rey)에 들어선 하우스앤워스 메노르카 풍경. 지역 커뮤니티의 활발한 연계로 문화 예술 활동과 학습을 도모하기 위한 갤러리의 세 번째 아트 센터이다. 4 하우스앤워스 메노르카 내에 있는 에듀케이션 랩. 지역의 학생들과 예술에 관심 있는 이들이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5 마크 브래드퍼드(Mark Bradford)의 전사 주민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장에 걸려 있다. ※ 1~4 Photo by Daniel Schäfer 5 미국 작가 라시드 존슨(Rashid Johnson)의 개관전 (Sodade)가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 Rashid Johnson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Photo by Stefan Allenburger 세계적 디바 세자리 아 에노르카가 부른 동명의 영국 'Sodade'에서 영감을 받은 전시 제목은 '그리움, 향수를 뜻한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해비타트 원)展

자연-사람-로봇이 공존하는 미래

과학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동시에 지구가 겪고 있는 고통은 극심해졌다. 극단적 더위와 추위, 집중호우와 가뭄, 대형 산불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을 망가뜨린 데 따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에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은 저마다의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런 기후 위기에 직면해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모범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일찍이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를 선보였고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친환경 기술 개발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 8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열리는 전시 <해비타트 원(HABITAT ONE)> 역시 그 행보의 일환이다.

서울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76.1메가톤.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전시장 바닥에 쓰여 있는 숫자다. 이는 2018년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연구 팀이 세계 도시의 인구와 소득 등 자료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로, 안타깝게도 서울은 1만3천여 개 도시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 거의 모든 산업의 화두가 되는 시대,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총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 중립에는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만큼 발생한 탄소를 어떻게 이롭게 바꾸거나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대자동차는 탄소 중립 시대를 살아가 첫 세대를 '제너레이션 원'이라 명명하고, 이번 <해비타트 원> 전에서 제너레이션 원을 위한 주거 솔루션 '셸터(Shelter)'를 소개한다. 전시에 참여한 에콜로지스튜디오와 바레스튜디오는 '포용력 있는 태도와 인간 외 다른 생명체와 서로 연결된 생태계 속에서 공생해야 한다는 세계관을 공유하며 각자가 연구해온 방식대로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거주 환경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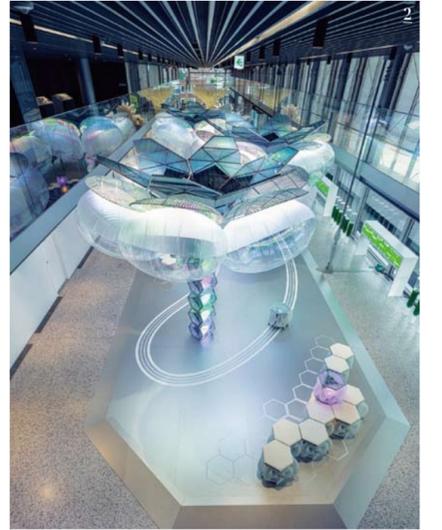
자연에서 솔루션을 찾는 바이오시티

에콜로지스튜디오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영국의 건축·디자인 그룹이다. 만약 인간과 생태계의 경계가 없다면? 만약 쓰레기를 다른 유기체를 위한 영양소로 바꾼다면? 만약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우지 않고 함께한다면? 이들은 이런 만약이라는 질문에서 영감을 받아 미생물과 박테리아에 주목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2층으로 올라가기 전 아래층 입구에서부터 존재감을 드러내는

'트리 원(Tree One)'이 바로 에콜로지스튜디오의 작품이다. 10m 높이의 인공 나무인 트리 원은 인공지능으로 나무 모양을 학습하고 3D 프린트 기술에 알게(Algae)를 첨가한 바이오 폴리머를 사용해 탄생시켰다. 알개는 파래, 김, 미역과 같이 물속에서 사는 광합성 생물로, 여러 연구에서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양과 속도가 육상식물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놀라게도 트리 원의 광합성 능력과 탄소 포집, 공기 정화 능력은 나무 20그루와 맞먹는다고. 산호 모양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 '호루투스 XL 아스타잔틴.gH.O.R.T.U.S. XL Astaxanthin.g'도 오염된 도시 공기를 정화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 작품은 편모조류와 공생해 광합성을 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산호의 생존 방식에 착안했다. 뼈대를 채운 알개 젤리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낸다고. '육지 산호와 불리도 될 법하다. 이쯤 되면 알개에 대해 더 궁금해질 텐데, 전시장 창기를 따라 배치한 작품 '포토신세티카 워크(PhotoSynthEtica Walk)'는 알개가 산소를 내뿜으며 배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실내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로봇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 모습

에콜로지스튜디오와 함께 전시에 참여한 바레스튜디오는 리서치 기반으로 작업하는 건축 스튜디오로 기술적이고 공학적으로 접근한다. '건축적 의미를 생성하는 동시에 물리적, 사회적 변화에 맞춰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에 관심을 둔다고 밝힌 바레스튜디오는 이동식 모듈형 로봇 '에어리(Air(e))'를 이용해 도심 속 휴게 공간인 '에어 오브 블룸(Air of Blooms)'과 자체적인 결합·해체가 가능한 '인해비팅 에어(Inhabiting Air)'를 선보였다. 현대 건축물은 한번 지으면 변경이 어렵고 건설과 해체 시 많은 폐기물을 생산하기에 자연에는 결코 이롭지 않다. 바레스튜디오는 이 지점에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건축물을 상상해냈다. 두 작품 모두 장소 고정식이 아니며 필요한 만큼 크기와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 로봇 에어리에는 태양전지 패널로 에너지를 축적해 주변 환경에 따라 공기 보습력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기술이 접목돼 있다. 아직 프로토타입이지만 단열과 방수 기능을 높이고 좀 더 세밀한 업그레이드 버전의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 "기술이 그 해답이다. 그런데 질문이 무엇인가?" 건축가 세드릭 프라이스(Cedric Price)의 이 말을 떠올리며 "기술 자체보다 사용 목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바레스튜디오는 진보한 기술과 변하는 사회에 걸맞은 혁신적 건축을 제안한다.

자연의 작동 원리에 주목하고 바이오 디지털 건축의 사례를 남긴 에콜로지스튜디오, 드론과 같은 현대 로봇 기술을 활용한 바레스튜디오, 완전히 다른 도구를 통해 제시하는 각자의 미래지만, 자연과 로봇, 인간이 공존하는 청사진으로서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미래의 셸터는 알갱이 브롬이 <행복의 건축>에서 말한 '우리의 약한 면을 보상해주고 마음을 지탱해줄 판타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제너레이션 원이 맞이하게 될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미래의 풍경을 그려본다. 글 김민서(엔팍빌 콘텐츠 디렉터)



실크 마카도 원단의 오버 스카트로 볼륨감을 더한
 벨벳 드레스 가격 미정 **모나리** by **해리리크**
 뉴욕, 주얼 보 장식의 샌들 힐 3백38만원 **로저**
비비에, 팬더 모티브의 화이트 골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오톨스를 세팅한 팬더 드 카르피에 아이링
 가격 미정, 간결한 라인과 대담한 디자인의 조화가
 돋보이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클래식 드 카르피에
 브레이슬릿 1천만원대, 감자에 레이어드한 클래식 드
 카르피에 링은 미디엄 사이즈 4백만원대, 스몰 사이즈
 3백만원대, 중자에 착용한 다이아몬드 세팅 화이트
 골드 소재 자스트 앵글루 링 7백만원대 모두 **카르피에**.

Sweet in Splendor
 혼자서도 아름답지만 둘이 만나야
 더 빛을 발하는 우리들의 모먼트.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강렬한 색채와 포말한 실루엣의 프린트
 디테일 재킷 5백80만원대, 재킷과 셋업으로
 착용한 팬츠 2백만원대, 코트 요플린 소재의
 셔츠 1백만원대 모두 **알렉산더 맥퀸**, 3개의
 독립된 반원 모양의 황에 질, 날짜, 요일이
 표시되는 18K 레드 골드 케이스 포르투가저
 애플워치 캘린더 워치 3천9백80만원 **IWC**.



(남자 18K 문사인™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으로 구성된 태양광 패턴의 그린 PVD 스텐 다이얼과 문워치 스타일 핸즈를 갖춘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프로페셔널 코-엑시절 마스터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문사인™ 골드 4천2백10만원 **오메가**.
 (여자) 지름 36mm 18K 문사인™ 골드 케이스에 측면을 따라 우아하게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38개의 풀 컷 다이아몬드 세팅이 돋보이는 드 빌 트레저 문사인™ 골드 워치 3천2백70만원 **오메가**.



여성용 오메가



(왼쪽부터) 41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 및 18K 옐로 골드 케이스에 플라싱 처리된 브라운 세라믹 베젤을 매치했으며 오메가 세라핀™로 채운 로마숫자와 실트 양각 마감 처리된 로듐 그레이 다이얼, 6시 방향의 날짜창으로 장식한 컨스텔레이션 코-엑시절 마스터 크로노미터 1천1백60만원, 18K 세드나™ 골드 및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34mm 사이즈 모델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베젤과 화이트 필 자가 다이얼을 비롯해 6시 방향에 원형 날짜창을 갖춘 컨스텔레이션 코-엑시절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틸 세컨즈 2천1백90만원 모두 **오메가**.



(왼쪽부터) 4세대 스피드마스터에서 영감을 받은 42mm 케이스의 문워치로 18K 문사인™ 골드 소재에 태양광 패턴의 18K 문사인™ 골드 스텐 다이얼과 블랙 질러의 서브 다이얼 및 핸즈를 매치한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프로페셔널 코-엑시절 마스터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문사인™ 골드 3천7백20만원, 스테인리스 스틸 및 18K 옐로 골드 케이스에 그린 알루미늄 링을 장식한 타카미테 스케일의 플라싱 및 브러싱 처리된 골드 베젤이 특징인 스피드마스터 코-엑시절 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38mm 8백70만원 모두 **오메가**.

문의 **오메가**(02-606-3301)



(왼쪽부터 차례대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여러 개의 밴드로 구성된 링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때 발생하는 광채가 아름다운 프레스션 링 2천만원대 **피아페**, 화이트 골드 밴드에 중앙과 양옆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한 벨 에포크 링 1천만원대 **다이아니**, 작은 옅은 큐브에서 영감을 받은 심플하고 모던한 강상의 링으로 로즈 골드 11개의 0.11캐럿 다이아몬드를 하프 세팅한 아이스 큐브 링 2백30만원 **스파드**, 알프레드 반클리프가 에스텔 아멜에게 헌정한 우아한 비즈 프레임 디테일의 워딩 밴드로 중앙 다이아몬드를 세팅이 매력적인 에스텔 워딩 밴드 1천1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두 연인의 인연을 상징하는 매듭 장식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볼륨감을 더한 리양 세쉬움 링 4백57만원 **소페**.



(남자) 패밀 블루 컬러의 라이트 울 트윌 소재 셔츠 1백50만원 **보티가 베네타**, 감자에 레이어드한 화이트 골드 쿠드 푸드로 워딩 링 2백10만원, 옅은 골드 쿠드 푸드로 워딩 링 1백95만원 모두 **프레드**, 1939 오메가 클래식 손목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지름 39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워터로 크라운에 빈티지 오메가 로고를 새긴 오메가 CK859 8백40만원 **오메가**, (여자) 슬리브리스 톱과 드레스 가격 미정 **프라다**, 베이지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타닐 넘버5 싱글 이어링 가격 미정 **샤넬 화인 주얼리**.

흐르는 듯한 느낌의 리워드 새틴 소재에 오프숄더 디자인의 슬리브를 더한 드레스 가격 미정 **뉴चा이트 by 헤라티크 뉴욕**,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노트 이어링, 노트 모티브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비채적으로 세팅한 티파니 노트 더블 큐브 다이아몬드 비크리스, 완소에 레이어드한 정교하게 세공한 월드 나이프 에지 디테일이 매력적인 3개의 아틀라스 클로즈드 와이드 링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여자) 레이스 트림 실크 드레스, 타이즈, 페이커 퍼코트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파이톤트 스트랩 펌프스 가격 미정 **올세안기 바나**, 네 가지 밴드에 다양한 컬러와 텍스처로 이루어져 강한 결속을 상징하는 코트로 화이트 스몰 싱글 클림 이어링 9백만원대, 코트로 클래식 XS 팬던트 9백만원대, 두 가지 코트로 모티브가 손목을 감싸는 코트로 클래식 브레이슬릿 6백만원대, 경지에 착용한 성세한 골드 오픈워크 세공의 코트로 레디언트 에디션 다이아몬드 오픈워크 링 8백만원대, 워치에 착용한 0.27캐럿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트로 클래식 인게이지먼트 슬리퍼어 링 4백만원대 모두 **부세르**, 남자 스트라이프 실크 이브 칼라 셔츠 1백만원대, 오가닉 코튼 소재의 팬츠 80만원대, 파이톤트 가죽 부츠 1백만원대, 슬림 벨트 70만원대 모두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지름 40mm 케이스에 화이트 다이얼과 이광 처리한 아라비아숫자 및 아워 마커 등 실용적인 기능을 겸족한 루미노르 마리나 쿼터타 워치 8백만원대 **파넬리아**.



과감한 언밸런스 카팅 디자인의 파티드 점프슈트 가격 미정 **알리아**,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 폴 파베 세팅된 대담한 디자인의 세르펜티 네크리스 1억6천만원대, 오픈손 감지에 착용한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세르펜티 컬렉션 링 9백만원대, 중지에 착용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세르펜티 바이퍼 1코일 링 2백만원대,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의 세르펜티 바이퍼 2-코일 링 1천9백만원대, 왼손에 착용한 옐로 골드 소재의 세르펜티 바이퍼 1코일 브레이슬릿 7백만원대, 왼손에 착용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 세르펜티 바이퍼 1코일 브레이슬릿 3천만원대 모두 **볼가리**.



슬리브리스 룬, 플라워 모티브 장식의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우류터) 카프 스킨 팔레트 스트랩에 스몰 사이즈 스틸 케이스를 매치한 보이 프렌드 스틸 가격 미정 **샤넬 워치**, 스타덤 컬렉션 탄생 1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아이코닉 스타덤 타임피스의 미니 버전으로 배경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틸 소재의 미니 다이아몬드 스틸 스타덤 워치 6백만원대 **랄프 로렌 워치 & 파인 주얼리**,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마더오브펄 다이얼의 스틸 소재 장미를 컬렉션 워치 가격 미정 **디올 타임피스**, 스매글 화이트 레커 다이얼의 스틸 케이스 컬러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모던한 실루엣에 일체적인 플라워 모티브 트래인을 더한 백리스 드레스 가격 미정 **오스카 드라 펜타 by 소유 브라이덜**,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이터널 넘버6 네크리스, 18K 옐로 골드로 이뤄진 핑킹 모티브가 포인트인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화인 주얼리**, 18K 핑크 골드 소재의 밴드 양 끝에 행운을 상징하는 화전 모티브를 더한 프렌치 오픈 핑크 브레이슬릿 5천만원대 **피아제**, 로즈 골드에 13개의 브릴리언트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느낌을 주는 비 마이 러브 브레이슬릿 1천만원대 **스메**,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베를리 라인에 차분하게 빛나는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핑크로 베를리 고유의 골드 비즈와 눈부신 조화를 이루는 베를리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스틸 2천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까르띠에 1566-7277
 헤리티지 뉴욕 02-514-4010
 로저 비비에 02-6905-3370
 IWC 02-3440-5876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오메가 02-3467-8632
 들레장크레바나 02-6953-4115
 랄프 로렌 워치 & 파인 주얼리, 랄프 로렌 컬렉션 02-3467-6560
 피아제 1668-1874
 다이아니 02-3213-2141
 반클리프 아펠 1668-1906
 소파드 02-6905-3390
 스메 02-2039-3854
 보타가 베네타 02-3438-7601
 프레드 02-514-3721
 프라다 02-3218-5320
 샤넬 화인 주얼리, 워치 080-200-2700,
 chanel.com
 티파니 02-6250-8620
 생 로랑 by 인토니 비카렐로 02-545-2250
 부쉐론 02-6905-3322
 파타리야 1670-1936
 알리아이 02-6905-3413
 불가리 02-2056-0170
 디올 타임피스 02-3480-0104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소유 브라이덜 02-541-7077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김부성
 모델 발레리아(Valeria), 알렉산더(Aleksandr)
 스타일리스트 박영자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이현민
 어시스턴트 신정임
 에디터 성정민

Ultimate Elegance

18세기에 최초로 제작된 여성용 포켓 워치부터 20세기에 유행한 주얼 워치에 이어 우아한 현대적인 시계까지. 아름다운 동시에 하이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겸비한 여성용 시계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이어온 바쉐론 콘스탄틴이 또 하나의 우아한 위치를 선보인다. *photographed by park jac yong*



패트리모니 셀프 와인딩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에서 영감을 받은 패트리모니(Patrimony) 컬렉션은 2004년 첫선을 보인 이후 잘재되고 세련된 워치메이킹 미학으로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해왔다. 이번 새로운 모델은 바쉐론 콘스탄틴 특유의 클래식한 라운드 형태와 기술력을 집약한 울트라-씬 스타일은 고수 하되 색다른 컬러와 비율로 재해석해 모던하면서도 모한 매력을 지어낸다. 소재와 컬러에 따라 총 4개의 다른 버전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한다.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딥 블루 다이얼을 탑재한 버전과 핑크 골드 케이스에 블러시 핑크 다이얼로 여성스러움을 더한 버전이 있으며, 각각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이 있다. 이번 패트리모니 모델은 클래식하고 모던한 디자인과 은은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준 컬러 다이얼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주 눈길어 가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인허우스 칼리버 2450 Q6/3으로 구동하며 시, 분, 센트럴 세컨즈와 날짜 표시창을 배차했다. 시간당 2인칭찬양백 회 진동하며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또 투명 케이스 백을 통해 밑테 크로스에서 영감을 받은 22K 골드 오픈워크 로터를 감상할 수 있다.

(왼쪽부터)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에 은은한 블러시 핑크 다이얼과 베젤에 세팅한 다이아몬드로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을 담았다. 4천8백30만원. 지름 36.5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은은한 그라데이션이 돋보이는 딥 블루 다이얼을 매치한 버전 3천8백80만원. 모두 **바쉐론 콘스탄틴**, 문의 1877-4306



트래디셔널 퍼페추얼 캘린더 울트라-씬

하이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망을 충족시키는 여성 워치이자 미학적으로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 주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신제품이다. 인허우스 칼리버 1120 QP로 구동하며 요일, 날짜, 일, 월을 표시하고 4년 주기로 반복되는 윤년 표시창은 물론 6시 방향 문패이즈까지 담아 워치메이킹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준다. 또 무브먼트 두께가 4.05mm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놀랍다. 미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것은 물론이다.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베젤과 러그까지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블루 그레이 컬러를 입힌 머더오브필 다이얼로 완성했으며, 핑크 골드 케이스는 은은한 화이트 머더오브필 다이얼로 마무리한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블루 그레이 컬러와 로즈 베이지 컬러의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으며, 도구 없이 푸시 버튼만으로 손쉽게 교체 가능하다. 우아함과 하이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모두 담고 있는 이 타임피스는 그동안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에 머물렀던 여성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것이다.

(위부터) 지름 36.5mm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에 화이트 머더오브필 다이얼을 매치했으며 로즈 베이지 컬러의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더해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는 워치. 블루 그레이 머더오브필 다이얼로 신비함을 더하고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베젤, 러그에 세팅한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시련한 느낌을 주는 워치 1억 1천8백만원에 대해 **바쉐론 콘스탄틴**, 문의 1877-4306 에 대해 **상영민**

(위부터) 페이틴트 레더 소재의 슈즈로 사랑스러운 캔디 핑크 컬러와 스트랩의 스와로브스키 장식이 개성 있는 웨딩 스타일을 연출해준다. 1백45만원
자미유, 문의 02-3479-1837 브랜드의 아이 티티를 담고 있는 T 타일리스 메탈 액세서리가 돋보이는 가족 소재의 우아한 타일리스 로퍼 1백만원 내 **로즈**, 문의 02-3438-6008



(왼쪽부터) 화이트 마이크로 패턴으로 장식했으며 튼튼한 리본으로 미우라헤 로맨틱한 웨딩룩을 완성하는 자도르 슬림백 펌프스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480-0104. 블랙 페이틴트 카프 스카인으로 은은한 광택감을 담아 세련된 룩을 완성해줄 디올 타일리스 다비 슈즈 가격 미정 **디올 맨**, 문의 02-3480-0104



romantic match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함께할 커플 슈즈.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은은한 베이지 핑크 컬러 카프 레더에 브랜드 상징인 FF 로고를 형상화한 디자인의 힐이 포인트인 앵글 스트랩 펌프스 1백만원 내 **빈디**, 문의 031-5174-7208. 섬세한 안티로징 G 홀스빗을 더해 더욱 돋보이는 포인티드 실루엣이 매력적인 블랙 레더 홀스빗 로퍼 1백26만원 **구찌**, 문의 02-3452-1921



(왼쪽부터) 브로그 디테일과 이몬드 모양의 알코가 특징이며 클래식한 세이프 모던하면서도 개성 있는 룩을 완성하는 호스힐 슈즈 가격 미정 **채니스**, 문의 02-3470-1140. 보와 힐은 물론 리본까지 반짝이는 크리스탈로 장식해 화려한 매력에 돋보이는 슈즈로 웨딩 후 이브닝 파티용으로 손색없는 아이 리브 비비에 보 스트라스 펌프스 4백45만원 **로저 비비에**, 문의 02-6905-3370 **에디터** **성정민**



아이소트브 신장민

Dreams in Nature

자연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자신만의 색다른 느낌을 선사하는 포멜라토의 세 번째 '라 조이아(La Gioia)' 하이 주얼리 컬렉션. '자연 속의 산책, 여명부터 어둠까지'라는 부제로 제작한 서로 다른 일곱 가지 테마의 33개 주얼리가 탄생했다.



브랜드가 창립된 1967년부터 지금까지 포멜라토는 선구자적인 디자인과 관습에서 벗어난 레디투웨어적인 스타일로 주목받아왔다. 이러한 창의적 영감은 늘 광활하고 무한하며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드넓은 자연에서 온다. 이번에 출시하는 '라 조이아(La Gioia)' 하이 주얼리 컬렉션 역시 이 자연 속 한 모먼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부제는 '자연 속의 산책, 여명부터 어둠까지(A Walk in Nature, from Sunrise to Darkness)'. 포멜라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빈첸조 카스탈도(Vincenzo Casaldo)는 자연 속을 산책하는 동안 그들이 보여주는 언어에 주목했다고 이야기한다. 꽃잎의 텍스처부터 폭풍 우치는 하늘의 누앙스, 불타는 석양의 아름다움과 같은 여명의 느낌과 감각 같은 것에서 비롯된 감정을 포멜라토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주얼리에 녹여냈다. 여명 주얼리와 마찬가지로 첫 디자인부터 마지막 스톤 세팅까지 말라노의 카사 포멜라토 아틀리에에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스럽게 빛아네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떠오르는 태양의 비밀 Secrets of the Rising Sun. 물 위에 아침 햇살이 비치는 듯한 바르코 세이프 젤스톤이 특징인 2개의 화려한 리베르 스타일의 네크리스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무려 1백50캐럿이 넘는 5개의 워터리 블루 아리아민으로 장식했으며 각각의 아리아민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드 와이어로 네크리스에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 보여 유연함과 부드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마치 파도에서 추출한 것과 같은 강렬한 오션 블루 색상이 인상적이며, 화이트 골드 링크의 불규칙한 사이즈는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하모니를 보여준다.

여름의 폭풍 Summer Storm. 그레이 톤의 무한한 음영으로 작업한 5개의 주얼리로 구성된다. 스톤아이에 세팅한 화이트 시우스 시 필과 그레이 타워티 필은 톤과 사이즈의 그라데이션을 잘 보여주며, 이는 주얼리 아웃사이즈 링크 양면에 세팅한 스파클과 사파이어, 화이트 다이아몬드에도 반영되어 있다. 2개의 라지 링크가 있는 버전은 한쪽을 체인으로 제작해 다양한 방식으로 착용 가능하다.

무지개의 색채 Shades of the Rainbow. 포멜라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감과 컬러를 가장 잘 표현한 컬렉션으로 2천5백 개 이상의 컬러 젤스톤을 세팅한 플래시 세팅한 카프 브라이슬릿 등이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하늘을 밝히는 찬란한 자연의 선물, 무지개를 상징한다. 컬러에 대한 포멜라토의 열정이 가장 잘 발휘된 테마라 할 수 있다.

한낮의 골드 Midday Gold. 이번 하이 주얼리 컬렉션 중 가장 칸템퍼러리한 디자인으로 햇빛의 힘을 포착한 세 가지 프렌체스 스타일의 네크리스로 구성되어 있다. 직사각형 골드 링크의 기하학적 요소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화이트 골드 크루메

1 한낮의 골드 테마의 네크리스에 시 블루 아리아민을 세팅하고 있는 모습. 2 포멜라토의 메시 체인 기술을 잘 보여주는 여름 속의 발견 테마의 네크리스. 3 5개의 워터리 블루 아리아민을 연결해 만든 떠오르는 태양의 비밀 테마의 네크리스. 4 그레이 스파클, 사파이어 및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아쿠아틱 플라워링. 5 포멜라토만의 기술력으로 제작한 링크와 타워티 필의 조화가 아름다운 여름의 폭풍 테마의 네크리스. 6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포멜라토의 컬러 스톤 세팅 과정. 7 46.9캐럿 카보숑 컷 만다린 가넷이 돋보이는 석양 속으로 테마의 링.



트 링크의 부드러움을 믹스해 소재의 대조를 보여주며 재미를 더하고, 여기에 마지막 센터 스톤이 강렬함을 부여한다. 센터 피스에는 각각 라군 그린 컬러의 17.9캐럿 파리아바 투르말린부터 18.55캐럿 소프트 핑크 모가나이트, 15.65캐럿 시 블루 아리아민을 선택했다.

석양 속으로 into the Sunset. 이번 테마는 금빛 찬란한 석양을 2개의 네크리스와 이어링, 링에 담아 표현했다. 이 테마를 잘 표현하는 피스는 이어링과 링으로, 이어링의 경우 일본 공예에서 영감을 받은 대나무 패턴을 사용해 이국적이면서도 은은한 느낌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링에는 힘을 주었는데, 결코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석양을 화려하게 표현하기 위해 46.9캐럿의 카보숑 컷 만다린 가넷을 메인으로 파베 세팅 브라운 다이아몬드와 오렌지 사파이어를 더해 완성했다.

해 질 녘의 그림자 Evening Shadows. 해 질 녘, 짧은 황혼의 순간을 록 크 리스탈과 골드 체인, 필의 세 가지 대조적인 조화를 활용해 표현했다. 이 테마의 피스 중 스톤으로 네크리스가 해 질 녘의 그림자를 확연히 보여준다. 낮에서 밤으로 변화하는 순간을 로즈 골드 메시 리본과 세 줄의 아코야 필을 결합해 유려하게 표현했다. 여기에 흔들리는 꽃잎에서 볼 수 있는 섬세한 색조를 담은 아쿠아틱 플라워링도 매력적인데, 블루 그레이 스파클과 사파이어 및 다이아몬드를 그라데이션으로 세팅해 오묘한 색감을 완성했다.

어둠 속의 발견 Discoveries in the Darkness. 메시 체인에 대한 포멜라토의 오랜 연구가 빛을 발하는 테마로 다양한 체인 형태의 유려한 네크리스와 주얼리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중 크래프트맨신의 마스터피스라 할 수 있는 골드 코드 네크리스가 돋보인다. 두 줄의 코드가 유연하게 목을 감싸도록 설계했으며,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라운델과 카보숑 컷 가넷으로 장식한 2개의 제트 맨드린트 가 코드 끝에 도발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작품은 1940년대 주얼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대조적인 소재를 통해 여성스러움과 대담함을 표현한 포멜라토 하이 주얼리의 대표적인 피스라 할 수 있다. 문의 02-3143-9486 **에디터** **성정민**



Welcome back to Pitti Island

피티 위모가 열리는 포르테자 다 바소가 다시 한번 다국적 언어로 가득 채워졌다. 2년 6개월 만에 참석한 피티 위모는 팬데믹 이후 첫 완결판이자 남성복 시장에서 또 다른 의미로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클래식 테일러링 하우스와 컨템퍼러리 브랜드, 그리고 신진 디자이너들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현대 남성을 위한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리는 피티 위모는 남성복 시장의 주요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지는 밀라노와 파리 맨즈 패션 위크의 런웨이가 바이어와 프레스토 하여금 다소 수동적인 관점으로 옷을 바라보게 한다면, 피티 위모는 수평적이고 능동적인 시선으로 브랜드를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 형식이 가까운 플랫폼이다. 의복에 대한 본질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물론 지속 가능성,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 관련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기에 좀 더 높은 차원의 교류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102회 에디션의 테마는 '피티 아일랜드'고정된 하나의 섬이자 생각을 교환하는 물리적 지점, 그리고 다채로운 실용을 펼칠 수 있는 패션 탐구의 장 역할을 지체했다. 남성복의 우아한 품격을 완성하는 판타스틱 클래식, 맨즈 웨어와 라이프스타일이 콤비를 이루는 푸투로 마스크릴레(Futuro Maschile), 편안하고 자유로운 스트리트 웨어와 특수 섬유로 제작한 신개념 의복, 그리고 친환경 액세서리까지 만날 수 있었던 다이나믹 에티튜드 섹션 등의 폭넓은 구성은 물론, 지금 패션

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웨일스 보너가 게스트 디자이너로 초청되어 새로운 컬렉션을 발표했다.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브랜드를 위해 마련한 SI 스타일 서스테이너블 스타일(SI Style Sustainable Style)과 우크라이나 디자이너와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우크라이나인 패션 나우(Ukrainian Fashion Now) 등의 차별화된 행사는 피티 위모가 패션계의 영향력 있는 추척 기관 중 하나로서 더 높은 차원의 책임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대담함과 수준 높은 큐레이션은 실로 감동적이었다.

Sustainable Vision

지난 2020년 1월, 97회 에디션부터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온 피티 위모는 이번 시즌 SI 스타일 서스테이너블 스타일 프로젝트를 통해 한층 진화한 친환경 패션의 다채로운 면모를 부각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실행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으로써, 중요한 난제를 풀어나가는 데 다소 주저하는 패션업계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을 제시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이탈리아 그린 패션 전문가 중 하나인 조르자 칸타리니(Giorgia Cantarini)가 직접 큐레이션에 참여해, 국제 패션 위크와 각종 패션 어워즈, 권위 있는 패션 대학들을 세심하게 조사한 후 10개 브랜드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친환경 패션에 대한 기본적 접근법을 넘어 창의성과 혁신성까지 겸비한 브랜드. 선정된 브랜드는 이탈리아 베이스의 베누, 메이드 인 브루클린을 표방하는 코너 맥나이트, 그리고 런던 베이스의 맥심 등으로, 패션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초청되어 책임감 있는 패션에 대한 기존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뛰어난 패션 콘텐츠로 진화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An Honorable Invitation

피티 위모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남성복 박람회로서 새로운 형식에 대해 고찰하며 디자이너들을 피렌체로 초대해 패션쇼와 쇼케이스를 선보이며 이를 구체화한다. 목표는 현대 남성을 위한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하는 것. 올해는 웨일스 보너, 앤 드렘미스터 등을 초청해 피렌체의 위대한 유산을 배경으로 그들의 다채로운 비전을 맘껏 펼쳐 보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Wales Bonner_ 게스트 디자이너로서 처음 문을 연 디자이너는 바로 웨일스 보너. 대형 패션 하우스를 이끌 수 있는 차세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주목받는 영국계 자메이카 출신의 그녀는 메디치 리카르디 팔라초를 배경으로 2023 S/S 컬렉션을 선보였다. 모국인 자메이카 시장에서 직접 조달한 향파 자루로 덮은 이유서 깊은 장소에서 테일러링과 애슬레틱 요소를 결합한 우아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소위 '합'이 가미된 테일러링이 특징으로 하이엔드 테일러링에 바로크 진주를 장식하거나, 유리 비즈로 만든 핸드메이드 목걸이를 매치하는 등 이번 시즌 다문화적 요소를 구현한 디자이너 중 누구보다 높은 기준을 충족시켰다. 또 아디다스와의 협업을

통해 선보인 스니커즈는 독일 아디다스 아틀리에에서 신사의 신발을 만들 때처럼 수작업으로 완성했다. 많은 패션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그녀는 버질 아블로에 이어 루이 비통 맨즈를 책임질 차세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중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었기에 이번 쇼가 무척 기대되기도 했다) 다양성에 대한 개념적인 목표와 상업적 필요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 명석함과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실력을 피렌체 무대에서 입증했다.

Ann Demeulemeester_ 게스트 오브 호너(Guest of Honor)로는 전설적인 해체주의 디자이너 앤 드렘미스터가 선정되어 특별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오래된 기차역 스타지오네 레오폴다의 사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배경으로 영예로운 쇼케이스를 열었다. 무대 위에 오른 그녀의 상징적인 아이키트 작품은 에지 있는 반향과 우아함이라는 흥미로운 조합으로 어둡고 낭만적인 세계를 창조했다.

Beyond the Fashion

한편 구찌와 브루넬로 쿠치발리는 피티 위모 기간에 각각 새로운 매장을 열고, 이를 기념하는 축하 파티를 열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피렌체 출신의 구찌는 구찌 가든의 새로운 올 데이 카페이자 카테일 바인 '구찌 자르디노 25'를 론칭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적 카테일 마스터이자 조르조 바르자이아니(Giorgio Bargiani)와 함께 비스포크 컬렉터를 위한 카테일, 이탈리아어로 발명의 묘약을 뜻하는 '엘리시아 디 엘리크리소스'를 선보이며 축하의 의미를 더했다. 조르조 바르자이아니는 구찌와 그가 공동으로 다니고 있는 토스카나 헤리티지에 기반해 토스카나의 향기로운 정원을 떠올리게 하는 싱그러움 풍미를 담았다. 구찌의 새로운 올데이 바 & 카페 구찌 자르디노 25는 피렌체의 유서 깊은 시뇨리아 광장에 위치한 구찌 가든 옆에 자리하며,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에디터 **이주이**(피렌체 현지 취재)



1 피티 위모가 메인으로 열리는 포르테자 다 바소. 건축가 알레산드로 모라레오의 지휘 아래 이번 시즌 티아 피티 아일랜드 콘셉트로 꾸민다. 2-4 8년의 문화로 자리 잡은 피티 위모 스트리트 패션 신, 테일러링 재킷, 패셔너블 등 클래식한 아이템에 자유롭고 여유로운 아틀리에를 기반으로 스타일링이 대세를 이룬다. 5, 6 게스트 디자이너로 런웨이 상연할 웨일스 보너의 2023 S/S 컬렉션. 7 피렌체 오페라 극장에서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인 쇼울랜드. 8 지속 가능성 창의성을 겸비한 패션 레이블 107를 신중해 선보인 인스타그램 스타일 하우스 스타일 프로젝트. 9 피티 위모 기간에 새로운 카페 & 카테일 바 '구찌 자르디노 25'를 론칭한 구찌. 이를 기념하기 위해 카테일 에디션도 선보였다. 10 스타지오네 레오폴다를 배경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인 앤 드렘미스터. 11 웨일스 보너의 컬렉션이 열린 메디치 리카르디 팔라초.

나인 웨일 코듀로이 재킷 3백만원대,
베스트 70만원대, 트라우저 60만원대,
드레스 셔츠 50만원대, 니트 타이
가격 미정 모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CODE CLASSIC

완벽한 실루엣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품위.
랄프 로렌 퍼플 라벨과 함께 보낸 하루.
photographed by **yoon ji yong**



해들리 캐시미어 울 트릴 스포트 코트 2백만원대, 플러드 캐시미어 스웨터 1백만원대, 그레고리 트릴 트라우저 70만원대, 하위지 캐주얼 로퍼 가격 미정 모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양말은 에디터 소장품.



실크 캐시미어 크루 넥 스웨터 1백만원대, 그레고리 트릴 트라우저 90만원대, 스웨이드 패치드 트릴 셔츠 80만원대 모두 **로렌 퍼플 리얼**.



글렌 플레드 캐시미어 카디건 2백만원대, 스웨터 1백만원대, 폴카도트 캐시미어 실크 넥셔츠 30만원대, 그레고리 트릴 트라우저 90만원대 모두 **로렌 퍼플 리얼**.



스웨이드 벨티드 재킷 6백만원대, 캐시미어 크루 넥 스웨터 가격 미정 모두 **할프 로렌 피플 라벨**.

클라이브 맨타임 바iker 모토
 재킷 2백만원대, 드레스 셔츠
 50만원대, 그레고리 트릴 블라우저
 90만원대, 에어 패턴 실크 타이
 30만원대, 프라스코 버클 부츠
 가격 미정 모두 **할프 로렌 피플 라벨**.
 문의 02-3438-6235

헤어 **이예복**
 메이크업 **유해수**
 모델 **캐빈(@YG K+)**
 어시스턴트 **신정임**
 에디터 **이주이**



Delightful journey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하는
샘소나이트 러기지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블랙라벨 리치몬드 II

가족 트리밍과 라인 디테일로 리치몬드 디자인 코드를
있는 제품으로 남성 모델 중 인기가 많은 블랙라벨
리치몬드 II 컬렉션. 부드러운 주행감과 에어로
트랙™(Aero-Trac™) II 기술을 적용한 서스펜션
볼-베어링 더블 휠로 탁월한 저소를 기능을 갖췄다.
또 도난 방지 지퍼는 물론 파스날라이징 가능한
모노그래밍 태클을 함께 장착했다. 라지 카버, 슈즈
파우치, 가먼트 파우치를 함께 구성한다.

경량성과 강한 내구성을 갖춘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한
25인치 블랙라벨 리치몬드 II 68218천원 **샘소나이트**.



민터 & 민터 홀리데이

폴리카보네이트 셀에 버티컬 패턴으로 부여한
세련된 질감으로 아름다운 외관과 견고함을 고루
갖춘 민터 컬렉션. 아이보리 컬러에 쿠퍼 샴페인
톤 알루미늄 로고 바를 더해 특유의 도화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특징이다. 하우스 고유의
에어로-트랙™ II 기술을 볼-베어링 휠 시스템에
적용해 효과적 인 충격 흡수와 저소를 주행으로
차원이 다른 주행 퍼포먼스를 갖췄다.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한 25인치 민터 54218천원.
스티 핸들 뒷면에 고정할 수 있는 스마트슬리브™가
있어 편리하며 추가 수납을 위한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민터 홀리데이 35X31X19cm, 12만8천원 모두
샘소나이트. 문의 02-2007-2943 에디터 **이유미**

하우스의 상징적인 코디드 캔버스 소재를
적용한 코너 컬러 오토마르 비세토스
캐리어, 블랙 오토마르 비세토스 캐리어
각 1백95만원 MCM, 문의 1600-1976



폴리프로피렌 소재 에센셜 컬렉션 아주르 컬러 캐리어 사이즈
90만 원대 리모와, 문의 02-2056-2257, 가내 반입이
가능한 사이즈로 선보이는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호라이즌 55
4백만 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Time to travel

생동감 넘치는 원색부터 은은한 광택이
감도는 알루미늄 소재, 도회적인 분위기를
지닌 무채색까지, 최고의 품질과 혁신적
기술을 적용한 여행용 트롤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은은한 핑크 컬러가 돋보이는 19 디그리
일루미늄 인테리뷰셔널 캐리어 1백40만원 루이,
문의 02-539-8160,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해
강한 내구성을 지닌 라이트 박스 알루미늄 76CM
1백39만원 썬샤이브, 문의 02-2007-2943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호라이즌 소프트 더블 55
3백60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레가티 볼카프 소재를 적용한 R.M.S 캐리어 50
수트캐리어 1천9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이주이



에디터 이주이



(위부터 차례대로) 독특하게 강한 카뮈플라주 패턴으로 개
성 있는 연출을 도모한 핑크 컬러 선글라스 37만원 말버러,
문의 02-2018-1439

비버드한 오렌지 컬러의 볼드한 프레임이 강렬한 포인트를
주며 사이트의 B 로고로 디자인을 살렸다, 32만원 바버리
by 룩스타카, 문의 02-501-4436

옐로 렌즈가 특징인 오묘한 그린 톤의 아사메이트 소재 선
글라스로 오벌 프레임이 독특한 감성을 선사한다, 83만5천
원 구찌, 문의 1577-1921

우아한 LV 아이스 및 모노그램 폴리우레탄 브랜드 고유의 장
인 장식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골드 톤의 금속 소
재 보잉 선글라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
1854

모던한 감성을 주는 스퀘어 세이프의 프레임에 더 볼드하게
연출한 다리 부분과 로고 플레이로 개성을 부여했다,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chanel.com

바티플라이 세이프의 보잉 스타일 프레임이 특징이며, 블루
빛을 띠는 렌즈와 골드 메탈 장식이 돋보인다, 가격 미정 디
올, 문의 02-3480-0104 에디터 상영민

Frame Fatales

가장 스타일리시하고
가장 완벽한 변신, 2022 선글라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에디터 상영민

The Red Treat

탁월한 효능과 친환경적 접근, 여기에 즐거운 감각적인 경험까지 아우르는 차세대 안티에이징 케어 라인 N°1 DE CHANEL.

샤넬 뷰티가 올해 상반기 출시한 N°1 DE CHANEL 라인은 어느새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했다. 레드 까멜리아 활성 성분으로 누리는 탁월한 안티에이징 효과는 물론, 오감을 만족시키는 즐거운 스킨케어 경험, 그리고 친환경적인 포뮬러와 지속 가능한 패키징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앞선 생각까지 아우르며, 최근 뷰티업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최상의 활성 성분, 레드 까멜리아!

피부는 자외선 차단처럼 안티에이징 케어에서도 계절에 상관없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N°1 DE CHANEL 뷰티 리추얼의 핵심 스킨케어 단계로서 피부 활력을 지켜주는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을 담아낸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이 이 역할을 자처한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이 주름, 눈에 띄는 모공, 탄력 저하, 광채 부족 등 노화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징후에 반응해 이를 개선하고 피부를 보호한다. 탁월한 효능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경험까지 아우르는 스킨케어 라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플루이드 젤 텍스처는 바를 때 느껴지는 촉촉하고 상쾌한 감촉이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하고, 빠르게 스며들어 피부는 한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천연

1



1 (좌에서부터) 탁월한 항산화 효과는 물론, 피부 진정과 영양 공급에 탁월한 레드 까멜리아 오일과 워터를 풍부하게 함유한 신제품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바디 세럼 미스트 140ml 12만4천원,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 전 단계에 사용하는 신제품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에센스 로션, 피부 탄력을 강화하고, 고르고 균일하며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한다. 100ml 12만9천원, 2 민감한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 가능한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 50ml 19만9천원, 3 N°1 DE CHANEL 라인의 핵심 성분인 레드 까멜리아.

2

유래 성분으로 자극이 없어 민감한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 가능하다.

효능과 경험을 아우르는 완벽한 균형

N°1 DE CHANEL은 홀리스틱 뷰티 라인으로서 스킨케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메이크업과 프레이그런스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이룬다. 각각 제품에 이상적인 포뮬러와 형태, 피부에 닿는 순간의 변화, 텍스처의 느낌, 부드럽게 발리는 감촉, 여기에 온온하게 퍼지는 향까지 피부가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감각적인 리추얼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모든 제품들이 각각 서로를 보완하며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샤넬 뷰티는 8월 신제품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에센스 로션과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바디 세럼 미스트를 출시하며 라인업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까멜리아 워터를 풍부하게 함유한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에센스 로션은 매끄럽게 녹아드는 수분 포뮬러가 특징으로 진정한 뷰티 리추얼의 시작으로서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을 바르기 전 단계에 사용하면 된다. 묽은 텍스처가 상쾌한 수분감을 선사하며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 활성 성분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과 나이아신아미드를 풍부하게 함유한 페

탈-클리어 콤플렉스로 다양한 피부 노화 징후에 작용해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피뮬질을 고르고 균일하게 가꿔준다. 무엇보다 피부가 한꺼번에 많은 성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보다 좋은 성분을 점진적으로 피부 위에 얹어 흡수력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안티에이징 케어, 얼굴만 편해해도 될까?”라는 질문에 샤넬 뷰티는 보디 피부에 생기와 광채를 충전하는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바디 세럼 미스트로 답을 제시한다. N°1 DE CHANEL의 핵심이 되는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과 동일한 농도의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해 보디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각종 노화 징후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가볍고 섬세한 밀키 텍스처가 즉각적으로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고, 활성 성분이 활력 효과를 발휘해 상쾌한 동시에 까멜리아 오일이 풍부한 영양을 피부에 전달한다. 문의 080-805-9638, chanel.com 에디터 **이주미**



Summer Grooming

강렬한 태양 아래 후끈 달아오른 피부를 단숨에 잠재워줄 수분 폭발 그루밍 리추얼.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샤넬 뷰티 라 무쓰 크리미한 텍스처가 물에 닿는 순간 풍부한 거품으로 변해 과도한 피지는 물론 먼지 등을 깨끗하고 상쾌하게 정화해주는 딥 클렌징 제품. 상쾌한 클렌징 효과와 세안 후 매끄러운 피부를 느낄 수 있다. 150ml 6만8천원. 문의 080-805-9638, chanel.com

클라리انس 맨 수퍼 모이스처 젤 건조함과 강한 열기로부터 피부를 지켜줄 젤 타입 모이스처라이저. 허우스크리 추출물이 수분을 즉각적으로 공급해주고, 피부를 진정시킨다. 칼라코에 성분이 보습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폭발적인 수분감을 자랑하며, 시원하게 발려 상쾌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이다. 50ml 5만8천원. 문의 080-542-9052

시세이도 맨 클리어 스틱 UV 프로텍터 SPF 50+/PA++++ 물과 땀, 고온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자외선 차단막을 생성해준다. 아토포도 활동 시 손에 닿어 바를 필요 없이 간편하게

수시로 사용 가능하며, 여러 번 덧발라도 가볍고 시원한 사용감을 자랑한다. 항산화에 효과적인 비타민 C와 E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20g 3만1천원. 문의 080-564-7700

디올 뷰티 소바쥬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라벤더와 베르베르, 파플리카 어우러진 신선하고 우디한 노트의 소바쥬 향기가 은은함을 선사하며 피부를 맑고 약취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150ml 4만9천원. 문의 080-342-9500

스위스퍼펙션 맨 아이 리차지 크림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젤 타입 아이 크림. 강한 생광력의 헬리크리스 추출물이 피부에 영양을 충전하고 탄탄하게 가꿔준다. 에일비아스 추출물이 예민한 눈가 피부를 편안하게 가꿔주고, 생기를 부여한다. 15ml 2만2천원. 문의 1644-4490

랩 시리즈 울안티 디펜스 로션 SPF 35/PA++++ 강한 열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오일 물질과 블루 라이트와 같은 알갱이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 건강한 피부를 관리해준다. 끈적임 없이 상쾌한 텍스처로 수분 케어는 물론 자외선 차단까지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데일리용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 50ml 5만2천원. 문의 02-6971-3224

시슬러움 안티에이징 글로블 리비탈라이저 노멀 스킨 세럼으로 손상된 피부 차유부터 보습과 영양 공급, 그리고 주름 관리까지 광범위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아우르는 아이템. 매트피닝 입자로 과도한 유분까지 케어해준다. 50ml 3만1천원. 문의 080-549-0216

키엘 팩시얼 퓨얼 텐트 멘탈 성분 함유에 상쾌한 애플리 세이브로도 사용하기 좋은 토너. 과잉 피지와 모공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해주는 데너우 추출물, 피부에 맑은 생기를 부여하는 카메린 성분도 담았다. 250ml 3만9천원. 문의 080-822-3322 에디터 **이주미**



이주미



Soir de Fête necklace

HIGH JEWELLERY

CHAUMET
PARIS